

행정간행물

25090 - 33246 - 44 - 98008

항공

www.airforce.go.kr

제293호

2002. 11

공군본부

2002. 11. 제293호 목차



21세기 항공우주군으로 거듭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

지휘봉	제11회 항공우주심포지엄 및 무기체계 전시회 개최사	3
공군은 지금		4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7
칼럼	21세기 공군 우주무기체계 정립을 위한 제언	8
21세기 항공우주정책과 과학기술	미래전을 대비한 우주 인프라 구축	10
하늘로! 우주로!	미래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한 우주상식(1) - 우주비행사	14
기획연재/철저해부! F-15K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 F-15K - (2) 임무체계 기술	17
항공기 열전	Ka-32 KAMOV	18
Air Power	정보 작전(Information Operation)(1)	19
Zoom In	항공경찰의 세계	22
현장탐방	KT-1 최초 운용부대, 217비행교육대대를 찾아서	24
I Love Air Force	오늘, 아들을 공군에 보내고~	27
	국민의 군대, 국민과 함께 하는 공군	28
마음의 양식	신독(愼獨), 그대 홀로 있을 때 삼가하라!	29
특별정신교육	충효예 교육과 실천	30
마음으로 읽는 글	당신, 괜찮으세요?	32

추억의 사진 한 장	마지막 비행을 하는 F-86F 전투기 편대(1990)	34
Air Focus	항공기 사진의 세계	35
문화마당	클립트, 황금빛 가득한 몽환적 에로티시즘	36
책으로 읽는 세상	글 쓰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충고 『유혹하는 글쓰기』	38
노래의 날개 위에	흩어진 마음, <겨울나그네>	40
기지극장	우아하고 감상적인 조선 베스볼 - YMCA 야구단	42
지구촌 여행	새로 보는 영국	43
GAME ALERT	비행시뮬레이션 게임 이야기 - F-16 Falcon(3)	46
건강 365일	스트레스, 피하지 말자!	49
기상전망대	첫 눈이 오는 11월에	50
이달의 역사인물	독립인물 신 숙(申肅)	51
	문화인물 김승호(金勝鎬)	51
	호국인물 고태문(高泰文)	51
독자마당	先公後私의 정신	52
책읽는 공군인이 아름답다	Shall we read? - 나의 독서법(3)	53
장병문예	풀 이파리 날리는 내 기억 속의 제조반	54
항공계 소식	인천공항 세계 3위, 대한항공 세계 6위 외 2건	56
알립니다	2002년 공군을 빛낸 인물 선발 외 3건	57
퀴즈로! 퍼즐로!		58
문화가 소식	『신의 표정 인간의 몸짓, 중국탈』 기증전 외 2건	59



참모총장 공군대장 김 대 욱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안보환경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전쟁수행의 형태는 최근의 주요전쟁에서 입증되었듯이, 항공 우주력 중심으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항공우주력 건설은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항공우주 무기체계의 적시적인 확보와 함께 공군의 정책과 전략 발전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항공우주력 건설의 방향은 먼저, 공중과 우주와 정보영역을 이용하여 국가의지를 관철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적의 무기체계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확보한 항공우주 무기 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리와 전략을 한국적 여건에 맞도록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교리와 전략 분야는 기존의 항공우주 무기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보환경에 부합되는 신무기체계 확보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 하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11회 항공우주심포지엄 및 무기체계 전시회 개최사 중에서

R.O.K.

국제 항공우주 무기체계 전시회 2002

· 일시 : 2002년 10월 20일

· 장소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전시관

· 기간 : 2002. 10. 18 ~ 19



Air Force

- 1 2
- 3 5
- 4
- 6 7

- 8 9

- 1 제11회 국제 항공우주심포지엄 및 무기체계 전시회 개최
- 2 김대욱 참모총장, 일본 항공자위대 항공막료장 초청 접견
- 3 제8전투비행단 203전투비행대대 8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 4 제16전투비행단, 항공기 제독훈련 실시
- 5 제5전술공수비행단, 대형 항공기 제독훈련 실시
- 6 제5전술공수비행단 군견부대, 공항 폭발물 탐색훈련 실시
- 7 제19전투비행단, 동계 강설 대비 다목적 제설장비 SE-88 점검
- 8 제15혼성비행단, 추계 화재예방 훈련·교육 실시
- 9 제17전투비행단, 미 정비요원 대상 전투기 정비교육 실시



R.O.K. Air Force



- 10
- 11 12
- 13 14



- 10 공군본부 의무감실, 항공우주의학 학술대회 개최
- 11 제16전투비행단, 호국문예행사 개최
- 12 제85정밀표준정비창, '2002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 단체 부문 국가표준화 대상 수상
- 13 제15혼성비행단, 사랑의 헌혈행사 실시
- 14 제18전투비행단 헌병대대, '친절·봉사' 배지 착용 근무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군,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공군인들이 펼치는 국민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

재난 구조 및 복구작업, 의료지원, 농번기 일손돕기, 자원 봉사활동 등

언제, 어느 곳에서도 든든한 국민의 보호자로, 웃음 띠는 다정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공군!

그들의 정성과 사랑이 국민들에게는 더없는 신뢰를 안겨준다.

1

2 3

4 5

- 1 제20전투비행단,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초청, 열린 음악회 개최
- 2 제16전투비행단, 지역 장애인단체에 부대 복지시설 개방
- 3 제17전투비행단, 대구 동성초등학교 초청 병영체험행사 실시
- 4 제10전투비행단, 자매결연 복지시설 위문방문
- 5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한 공군 여성조종사와 대한민국 항공회 김경오 총재



21세기 공군 우주무기체계 정립을 위한 제언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장영근

탈냉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종래의 수적·양적인 측면의 군사적 외형을 축소하는 반면 격변하는 국제분쟁에 능동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첨단 군사력 확보와 군사기술 개발과 같은 질적인 측면의 군사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특히 걸프전과 코소보 사태, 그리고 아프간 사태를 통하여 위성을 이용한 정찰 및 감시와 표적에 대한 정보의 획득,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한 정밀항법 및 폭격지원, 통신위성을 이용한 광대역통신 지원 등 우주의 군사적 활용이 분쟁의 조기해결에 있어 필수요소가 되었으며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은 주변국의 군비확장에 따른 군사적 위협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쟁 발생시 우세한 군사작전을 전개하여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주의 군사적 활용이 필요하며 현재 전투력 중심의 항공군에서 항공우주군으로 임무를 확장시키고 우주무기체계의 확립과 자주화 수준을 제고, 미래 전쟁양상과 안보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념의 정립이 요구된다.

미래전의 승패는 우주에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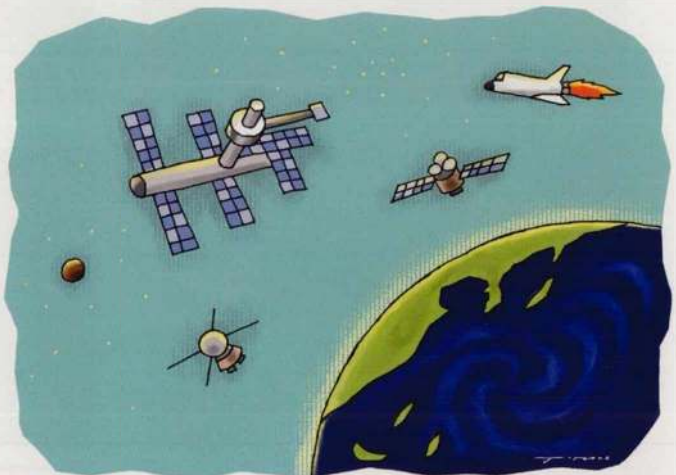
미래전에서 우주전력의 우세에 의한 우주공간의 장악은 전쟁 수행시 아군 작전상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우주자산은 지상(육상, 해상

및 공중)의 군 작전운용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듯 우주의 군사화는 이미 상당한 진행 단계에 있으며, 보다 중요한 문제는 우주의 무기화가 적어도 조만간 또는 중·단기간 내에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우주무기체계의 구성은 크게 군사위성, 우주무기, 그리고 우주감시체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에 미국에서 추진 중인 국가미사일방어망(NMD)은 우주무기체계 및 지상감시망을 기본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자국의 우주전력을 보호·유지하고 비상시 적 우주전력을 파괴,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주무기가 미국과 러시아(옛 소련)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활발히 연구되어 왔으며, 레이저 무기와 같은 일부 무기는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 성능개량이 진행 중에 있다.

우주전을 대비한 인프라 구축

공군은 우주를 국가번영과 안보를 위한 군의 확장된 활동영역으로, 국가안보를 결정하는 중부



조건으로, 그리고 미래전에서 전략의 중심이 될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다름 아닌 미래 우주전에 대비한 공군의 우주무기체계 인프라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실질적인 공군 우주체계 정립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가 당장 미국과 동등한 군 우주체계 및 우주전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우주전력체계 개발전략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정부가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우주기술과 연계하여 상업화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및 위상제고 등 국가전략적 필요성에 대해서 민·군 우주협의를 구성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우주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미국에서는 국가위기 또는 전시 중에는 군이 모든 우주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우리는 기존의 우주인프라도 국가위기 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방과 국가안보는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을 포함하는 우주정책의 한 축으로 움직여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우주전력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성항법 수준의 정밀항법은 미래전의 정밀타격, 정찰 및 지휘통제 자동화 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다. 현재 유도무기체계, 무인항공기, 전함, 장갑차, 헬기 및 일반 전투병에까지 대부분의 무기체계에 이 위성항법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위성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한국군으로서는 전시에 군 위성항법 정보이용이 GPS 위성 보유국가인 미국의 의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 또한 민수용 코드만 사용시 적의 전자전에 매우 취약하여 사용이 극히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 군에도 군 전략환경에 적합한 전용의 대체위성항법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넷째, 군용 통신위성은 전장지휘 통제수단, 부대간의 통신중계 및 비밀자료의 장거리 통신 등을 위해 사용된다. 최근에는 새로운 위성통신 기술, 특히 초고속 이동통신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국방부나 각 군에서는 상용위성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정찰 및 감시를 위한 우주기반의 원격 탐사는 기본적으로 풍선이나 항공기에 의해 수행된 관측행위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고해상도 영상위성 시스템의 개발은 거액의 개발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간의 영상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다목적 위성과 같은 실용급 위성의 데이터를 이용하면 군에서 요구되는 군 우주시스템의 소요개수를 줄이고 보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인적 자원은 전투력 발휘의 주체이자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우리 공군이 미래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주분야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기술적인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주전력을 구축해야 한다.

우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때

미래전에는 전장이 우주로까지 확대가 될 것이며 우주의 통제가 전쟁승패에 핵심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우주분야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우주전력체계 구축과 우주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여건과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획득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체계를 운용한 경험을 토대로 더욱 발전된 체계를 확보하여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우주전력의 증강은 단시일 내에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우주전력은 적어도 10~20년 전의 우주기술개발 및 응용의 결과물로 21세기(2020~2030년)의 우주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우주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

공군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21세기 항공우주정책과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제11회 항공우주 심포지엄 및 무기체계 전시회」를 개최했다. 공군발전/항공우주무기체계의 2개 분과로 나뉘어 실시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1천여 명의 국내외 항공우주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여 31편의 깊이 있는 주제논문 발표에 이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국내외의 15개 무기체계 관련 업체와 연구기관들이 참가한 첨단 항공우주무기체계 전시회가 열려 21세기 무기체계의 발전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주요논문 3편을 통해 미래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공군의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



미래전을 대비한 우주 인프라 구축



우주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용 개념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김상준 교수
인공위성관측팀 이동규 팀장

지구촌에서만 행해졌던 과거의 전쟁 환경과는 달리 이제는 우주라는 광활한 영역을 대상으로 고차원적인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영공수호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배타적이고 자주적인 우주감시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지구근접천체(인공위성, 우주선, 우주잔해물 등)에 대한 지상배치 우주감시시스템으로 얻어지는 활용효과로는 ▲인접국가의 공표되지 않은 새로운 발사체(또는 기존의 발사체)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대상물의 상세 정보자료 획득이 용이하고 자국 내에서 이들의 감시 및 조사를 피해 안전한 구역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국의 인공위성에 대해서 우주공간에 흩어져 있는 물체와의 충돌 및 대기권 재진입시 지상과의 충돌과 같은 재해를 사전에 피할 수 있는 제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인공위성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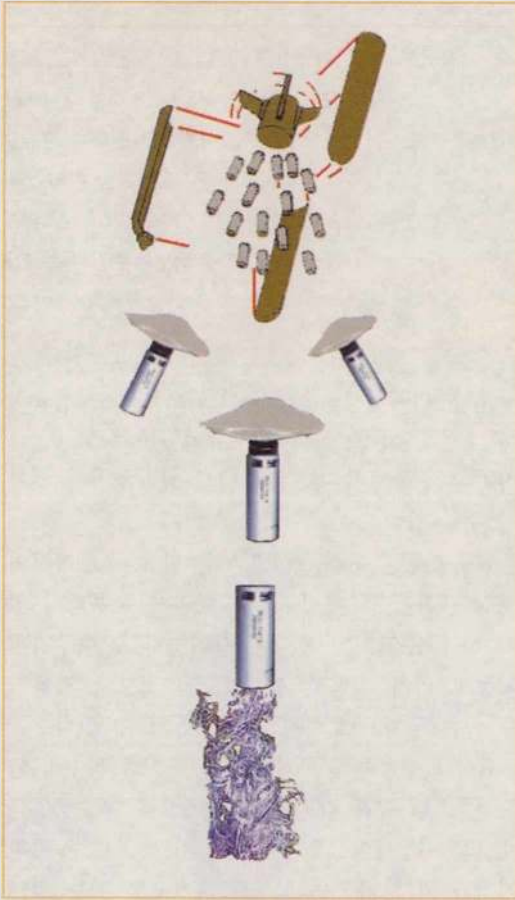
지구촌에서만 행해졌던 과거의 전쟁 환경과는 달리
이제는 우주라는 광활한 영역을 대상으로
고차원적인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영공수호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배타적이고 자주적인 우주감시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탄도탄 미사일을 탐지, 추적함으로써 적성향적에 대한 조기경보체계의 구축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우주물체의 궤도 및 예상 낙하지점을 추정할 수도 있다.

우주감시는 우주 통제임무와 함께 우주작전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임무이다. 따라서 우주감시 없이 타 우주작전의 수행은 불가능하다. 우주감시 활동에 의해 획득된 정보는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안보차원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위성을 활용한 군사 첩보활동 증가와 장거리 탄도탄무기의 우주 대기권 활용 등으로 우주공간은 새로운 전장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우주전 시대가 이제 가까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날로 급증하는 인공위성의 발사와 운용으로 인해 21세기는 벌써부터 Space Traffic Jam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우주물체 상호 충돌 위험의 증가로 인해 정상적인 인공위성의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매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관리를 위한 우주환경 예보와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래전에 대비한 공군 정밀유도무기 발전방향

전투발전단 전자전담당관 강희창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미래전에 대비하여 우리공군은 「공군비전 2025」를 설정하여 「공세적 중심 타격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 발전 구상을 제시하였다. 즉, C4(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ing)+ISR(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PGM(Precision Guided Munitions)이 결합된 메타 시스템(Meta System)을 2025년까지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가 되면 전장상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전투체계간 작전인식을 공유하게 되며, 다양한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가 융합되어 지휘관이 적시에 빠르게 결정하여 각 전투체계간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격을 지시하면 표적을 신속히 타격(선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센서로부터 타격체계(Sensor-to-shooter)까지 실시간에 정보를 교환하여 작전템포는 과거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정밀유도무기(PGM)는 미래전에서 적에게 타격을 가하는 실질적인 군사력으로 기능할 것이다. 특히, 공군력은 기동성과 화력을 동시 구비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거리만 연장하면 언제든지 적의 전략적 중심을 타격할 수 있어, 항공기를 포함한 정밀유도무기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미래전에 대비한 정밀유도무기는 장거리(Stand-off) 정밀교전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탄착 정확도(CEP)를 향상하여 1개의 주공격점(DMPI)에 1개의 폭탄으로 공격가능, ▲적의 대공위협 사거리 밖에서 중요 전략 표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중·장거리 정밀유도무기의 확보, ▲적의 견고표적을 1회 공격으로 다수 파괴할 수 있도록 소형 유도폭탄의 확보와 특수 목적탄의 확보, ▲긴급표적(TCT)에 대한 신속한 공격을 위해 자율공격무기(LOCAAS 급)의 확보와 극초음속 공격무기의 개념연구가 필요하다.



미래 한반도의 안보환경과 무기체계의 자동화·무인화·지능화추세를 고려할 경우 방어적인 전자전장비만으로는 발생확률이 높은 국지·제한전에서조차도 우수한 전력을 가진 상대방을 제압하기 곤란할 것이다. 즉, 정보우세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공세적인 전자전장비를 군사혁신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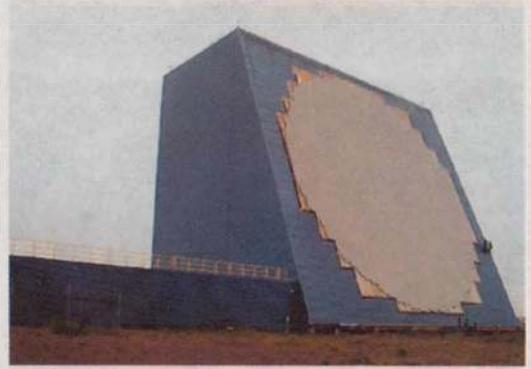
미래 전력체계 발전추세를 고려한 전자방어기술의 발전동향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유태선
 선임연구원 황정섭

지금까지 우리는 방어적 전자전장비를 개발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미래 한반도의 안보환경과 무기체계의 자동화·무인화·지능화추세를 고려할 경우 방어적인 전자전장비만으로는 발생확률이 높은 국지·제한전에서조차도 우수한 전력을 가진 상대방을 제압하기 곤란할 것이다. 즉, 정보우세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공세적인 전자전장비를 군사혁신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군사선진국은 이미 정보우세를 경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최적방안이 선진형 정보·전자전 전력이라는 판단하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전자전장비를 지속적으로 개발한 덕분에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지만 질적으로 우수한 공세적 전자전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전에 대비하여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전자전 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발위험도는 다소 있지만 질적으로 우세한 공세적인 전자전장비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환경과 미래전력의 발전추세를 고려할 경우, 공세적 전자전전력의 핵심인 원격 전자전지원기(SOJ : Stand-Off Jammer)를 단·중기적인 차원에서 독



자적으로 개발하고, 이어서 HPM(High Powered Microwave)체계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개발한다면 경제적으로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의 첨단 전자전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환경, 기술의 성숙도, 선진국의 개발동향 등을 고려할 경우, 질적 우위의 공세적인 전자전장비를 개발해야 할 최적기는 지금인 것으로 판단된다. ⚡





미래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한 우주상식(1)

우주비행사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 우주무기담당



우주비행사가 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인우주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유인우주선에 탑승해야 한다. 미국의 우주왕복선이나 러시아의 소유스 우주선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 우주왕복선의 경우,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 비행 우주비행사에 지원하려면 미국 국민(시민권)이어야 하며, 공학, 생명과학, 물리, 수학과 관련된 대학학과를 나와야 한다. 그리고 우주선을 조종하기 때문에 제트기 조종사로서 1천시간 정도 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신체적으로는 시력이 0.4 이상이어야 하며, 신장은 160~190cm가 적당하다.

임무 전문가 우주비행사의 조건은 비행 우주비행사와 비슷하지만 반드시 미국 국민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미 항공우주국(NASA)이 요구하는 신체조건에 엄격히 맞아야 한다. 시력이 나안 0.2 이상에 교정시력 1.0 이상, 신장은 152cm에서 193cm 사이면 된다. 그리고 공학, 생명과학, 물리, 수학에 관한 학사학위, 3년 정도의 관련분야 종사경력이 있어야 한다. 회사를 다니지 않고 공부했을 경우 석사는 1년 정도, 박사는 3년 실무 경력으로 대치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체조건 외에도 모든 우주비행사들은 영어를 잘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주선 승무원들이나 지상요원들과 원활한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체연료

우주비행사는 우주선을 조종하는 '비행 우주비행사'와 과학실험을 맡는 '임무 전문가 우주비행사'로 구분된다. 우주개발 초기에 우주비행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대부분 공군 조종사인 동시에 우수한 자질을 갖춘 사람만이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해 우주비행사가 될 수 있었다.



로켓과 액체 로켓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우주왕복선은 많은 훈련을 받지 않아도 탑승할 수 있다. 77세의 우주비행사도 탑승했으니, 일반인도 조금만 훈련을 받으면 탑승이 가능할 것이다. 1986년에는 챌린저호가 폭발하여 우주비행사 7명이 사망하기도 했으나,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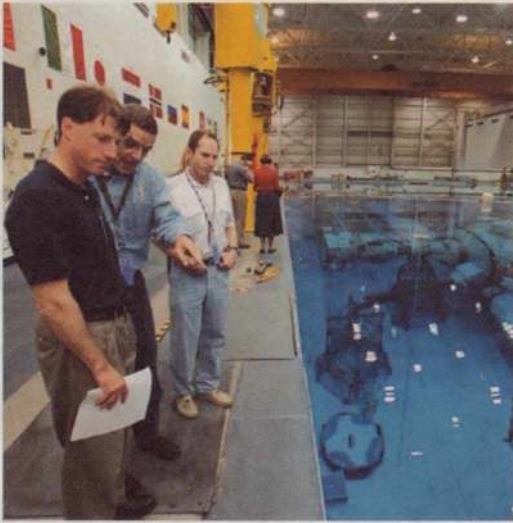
중앙 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 있는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되는 소유스 우주선은 우주왕복선에 탑승하는 사람보다는 훈련을 더 많이 받아야 탑승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소유스 우주선을 발사하는 로켓이 사람을 태우기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라, 폭발을 운반하는 미사일을 개량했기 때문이다. 착륙도 낙하산을 이용하여 지상에 착륙하기 때문에 충격이 크다. 그러나 1976년 소유스 1호가 착륙과정에서 낙하산이 퍼지지 않아 승무원 1명이 사망한 것 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 소유스 우주선은 러시아의 미르 우주정거장에서 생활하는 우주비행사를 교체하는데 사용되었다.

우주비행사의 훈련

우주선 안을 뒹뒹 떠다니는 우주비행사의 모습은 동화 속 환상처럼 보는 이를 즐겁게 한다. 그러나 위아래 개념도 없고 무게도 느낄 수 없는 우주공간에서 실제 활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우주비행사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 지상기지에서 무중력에 대비한 충분한 훈련을 받는다.

그러면 무중력 훈련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일까? '공기를 모두 뺀 커다란 통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무중력과 진공의 의미를 혼동하고 하는 소리다. 무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지, 공기가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다. 지구의 인력권으로부터 완전히 멀어 지지 않는 한, 중력은 어떤 장치로도 차단할 수 없다.

NASA에서는 이런 무중력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트비행기를 이용한다. 비행기가 고공으로 날아오르다 급강하하면 순간적으로 무중력과 같은 상태가 된다. 놀이기구를 타고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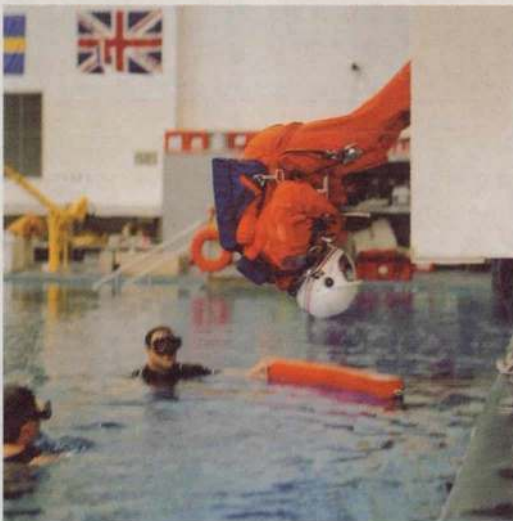
갔다 내려갈 때 허공에 붕 뜬 느낌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리다. 이 때 강하하는 비행기에 계속 가속도를 붙이면 무중력 상태를 한동안 더 지속시킬 수 있다. NASA의 숙련된 조종사들은 이상태를 30~60초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우주비행사들은 이처럼 짧은 무중력 상황을 반복해서 만들어 가며 훈련한다.

러시아 스타시티라는 곳에서는 수중 무중력 훈련을 실시한다. 3층짜리 원형건물의 중앙에 지름 23m, 깊이 12m의 대형 물탱크를 설치하고 특별히 고안된 우주복을 착용하여 실제 무중력 상태와 비슷한 상황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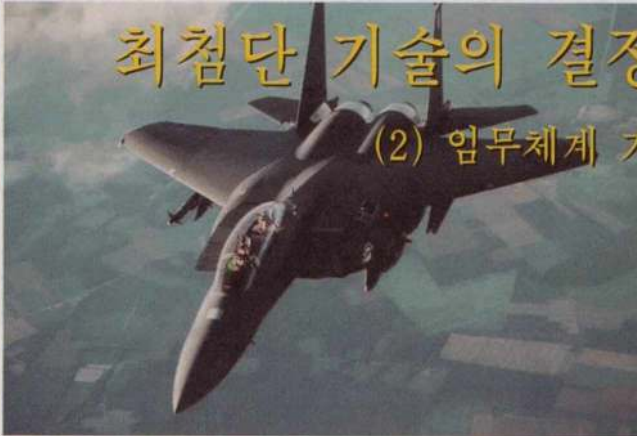
기, 우주선 문 여닫기, 태양전지판 교체작업 등의 훈련을 하게 된다.

우주비행사의 훈련은 우주비행사의 임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한 번 우주정거장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세 번의 가상훈련을 받게 된다. 수중훈련 1회를 마치고 나면 보통 2~3kg의 체중이 감소할 정도로 수중 무중력 훈련은 상당히 힘이 든다.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우주비행을 한 사람 중 외국인은 15개국 17명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은 없다. ☹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 F-15K

(2) 임무체계 기술



항공사업단 전투기사업처

1. 구조설계 기술
2. 임무체계 기술
3. 무기체계 기술

F-15K에 적용된 임무체계 기술은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레이더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레이더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진 APG-63(v)1이 장착되어 있으며, 능동형 전자식 레이더(AESA :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ntenna)로 개량이 가능하며, 해상도와 정밀성이 높은 합성 개구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 기능 및 전자전 대응능력(ECCM : Electronic Counter Counter Measure)을 보유하고 있다.

극초단파 전력 모듈(MPM : Microwave Power Module) 기술은 전원 및 냉각기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항전장비의 성능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기술로서 내장형 전자재머(ICS : Internal Countermeasure Set)에 사용된다.

헬멧장착 자동 조준장치(JHMCS : Joint Helmet Mounted Cueing System) 기술은 조종사 헬멧에 장착된 시현장치와 자기추적장치를 결합시켜 조종사의 시선이 주시하고 있는 표적을 자동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서, JHMCS를 이용하여 조종사가 시선을 표적에 대고 계기반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레이더, 공대공 미사일, 적외선 센서 및 공대지 미사일 등이 조종사가 주시하는 방향에 맞게 자동으로 정렬된다. 또한 조종사가 교전 중에 고개를 숙여 계기반을 보지 않고도 헬멧에 부착된 HUD(Head up Display) 시현장치를 통해 속도, 고도, 표적과의 거리정보 등 원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술은 F-22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최신형 임무컴퓨터(ADCP : Advanced Display Core Processor)는 F-15K를 위해 개발되고 있는 최신의 항공전자 장비용 자료처리장치(임무컴퓨터)로서, 기술발전에 따라 개량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F-15K형으로 특별히 개발한 **전투기용 데이터링크(FDL : Fighter Data Link)**는 <항공기↔항공기>간, <항공기↔지·해상>간에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 및 자료를 자동으로 전달하는 체계이며, 최신형 **전방투시적외선장비(FLIR : Forward Looking InfraRed)**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표적 식별 및 항법용 장비로서 F-15K용 FLIR 장비는 기존의 미 공군 F-15에 사용된 LANTIRN(Low Altitude Navigation and Targeting Infra-Red System for Night) 체계보다 운영고도 및 거리가 증가된 Tiger Eye 체계이다.

또한, **평면 시현기술(Flat Panel Display)**을 적용하여 전·후방 조종석에 장착된 완전평면 다기능 디지털 시현장치(5인치·6인치)를 장착하여 각종 비행정보를 조종사가 보다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외선 탐지 및 추적용 센서를 이용하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 InfraRed Search and Track System)**는 전자파의 간섭을 받지 않아 전자전 대응능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 목표탐지 및 미사일 발사를 가능하게 하였다. Ⓣ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

Ka-32 항공기는 Twin-turbine 엔진 장착 군용 및 민간용으로 제작된 다목적 헬리콥터로서 1969년 개발을 시작하여, 1973년 prototype 항공기가, 1980년 10월 첫시제기가 비행을 실시하였다. 1985년 6월 파리에어쇼를 통해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었으며 1995년 모스크바 에어쇼에서는 최초의 군용항공기 형태로 전시되었다.

Nato명 Helix-C인 Ka-32 항공기는 Tail Rotor가 없는 KAMOV형의 co-axial rotor 헬기로서 러시아 해군 함상용 및 육군용 헬기를 제작하는 러시아의 쿠메르타우 항공기 제작사에서 제작하였다. Ka-32는 최초에는 해상형인 C형과 육상형인 T형이 제작되어 해상인명구조 및 산불진화에 투입되었으며, 항공기 성능을 인정받아 A형은 1993년 이후 탐색구조용으로 개조 판매되었다. 개조 판매된 A형은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 산악 및 해상 구조용으로 약 15대를 운용 중인 것으로 볼 때 항공기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170여 대가 생산·판매되어 운용 중이다.

Ka-32 항공기는 항공 역학적으로 Tail Rotor가 없는 co-axial rotor system을 선택하여 바람에 강하고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도모하였다. 지·해상을 포함하여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우수한 성능의 통신장비와 항전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극지방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방

빙계통(Anti-ice, De-ice)의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IFR 비행을 도와줄 수 있는 자율항법시스템과 다목적레이더를 장착하여 전천후 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장거리 비행을 위해 외부연료장착이 가능하도록 했고, 해상오염 방제작업을 위한 Spray 입무도 가능하다. 인명구조를 위한 hoist(300kg까지 가능)를 장착하였고 함상 화물의 적·하역이 편리한 구조로 제작되었다.

국내에서도 Ka-32 항공기는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방본부, 국립공원 관리공단 등에서 러시아 경험차관 상환형식으로 구매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공군의 탐색구조기로도 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제원 및 성능

- 기장/기고/기폭 : 15.9m/5.45m/3.8m
- 엔진 및 추력 : 2대의 TV3-117V(개당 2,190shp)
- 화물탑재능력 : 3,700kg(내부) 또는 내부인원 16명, 5,000kg(외부)
- 최대이륙중량 : 12,700kg(27,998lbs)
- 최대순항속도 : 130Kts(최대 : 140Kts)
- 최대순항거리 : 432NM(보조연료장착시 : 612NM)
- 최대체공시간 : 4시간 30분
(보조연료장착시 : 6시간 25분)

미 공군 교리 2-5

정보 작전(Information Operation)(1)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본 교리는 정보작전을 통해 정보우세를 달성하기 위한 전투측면의 관점을 설명하고, 항공우주 정보작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업무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1. 전략공격
2. 우주 작전(Space Operation)
3. 제지(counter land) 작전
4. 정보 작전

정보작전의 본질

정보작전은 정보 및 정보체계를 획득, 활용, 공격 및 방어하기 위해 취해지는 행위로서 정보기반전(Information-In-Warfare)과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기반전은 정보의 획득·활용에, 정보전은 정보작전의 공격과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작전의 모든 단계에서 공중, 우주 기능을 지원한다. 성공적인 정보기반전·정보전은 기밀성, 상호운용성, 신뢰성 있는 정보작전 환경에 의존하며 이는 정보지원업무에 의해서 구축된다.

정보우세는 우군이 적으로부터의 저항을 받지 않는 가운데 정보를 수집, 통제, 활용 및 방어하기 위한 정보영역에서의 지배 정도를 말하며 성공적으로 실행된 정보작전을 통해 달성된다. 공중 및 우주우세와 마찬가지로 정보우세는 전투력의



주요 요소로서 지휘관의 신속한 상황 판단, 위협 및 위협에 대한 도출 및 평가, 적시 정확한 의사 결정, 유리한 전장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항공우주력의 운영으로부터 획득한 전략적 시각과 범세계적인 경험은 정보우세의 달성에 있어서 공군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정보의 획득, 활용 및 처리는 항상 전쟁의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미래에는 이러한 것들이 전쟁의 핵심이 될 것이다. 정보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서 발전하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정보 그 자체가 무기 또는 표적이 되고 있다. 발전하고 있는 정보작전 환경의 여러 가지 핵심요소 중 하나는 범세계 통신 및 네트워크의 급속한 성장이다.

공군인은 공군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에 시기 적절하게 접근해야만 하며 범세계 정보망(GIG : Global Information Grid)이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체계에 대한 공군의 의존성은 강점인 동시에 잠재적 약점이 될 수 있다.

미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잠재 위협들은 더 이상 단순한 지형적 혹은 정치적 경계로 규정되지 않는다. 잠재적국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정보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고, 미국이 적에 대해 정보작전 운용을 계획하고 있듯이 적 역시 정보작전에 대한 상응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작전은 적에 대한 우군의 정보작전 운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미국과 우방국의 군사정보와 정보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들의 능력을 최소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정보전은 정보작전의 공격 및 방어 측면에 중점을 둔다. 정보제압이란 용어는 공군의 정보전 능력을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의 정보활동을 거부 또는 무력화함으로써 정보우세 확보를 지원하는 항공우주력 기능이다. 제공, 제우주와 마찬가지로 정보제압은 공세적 활동과 방어적 활동으로 구성된다. 공세적 정보제압은 적의 정보능력을 제한, 약화, 혼란 또는 파괴하기 위해 계획되며, 방어적 정보제압은 아군의 정보, 정보체계 및 정보작전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활동이다.

공세적 정보제압의 기능들로는 물리적 공격, 전자전, 심리작전, 군사기만, 공보작전,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등이 포함된다. 물리적 공격, 전자전과 같이 직접적인 군사력을 통해 적 표적들을 파괴 또는 무력화할 수도 있으며, 심리작전, 군사기만, 공보작전과 같이 적의 마음을 표적으로 하거





나 적으로 하여금 기만주체의 목적대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은 정보체계를 사용해 컴퓨터, 컴퓨터 내의 정보 또는 네트워크 자체를 두절, 거부, 저하 또는 파괴하기 위해 수행되는 작전으로 컴퓨터와 통신체계는 공격을 위한 주요수단이며 동시에 적 정보전의 주 표적들이다. 모든 공세적 정보제압 작전들은 다른 항공우주작전들과 통합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방어적 정보제압의 기능으로는 작전보안, 정보보증, 컴퓨터 네트워크 방어, 대(對)기만, 대(對)심리작전, 대정보 및 전자보호가 있다. 작전보안은 적이 아군의 작전에 관한 정보를 획득·활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정보보증이란 인증성, 전송시 출처확인 능력 등을 통해 비인가자의 접근에 대하여 정보 및 정보체계를 보호, 방어하는 대책을 말한다. 컴퓨터 네트워크 방어는 정보체계 및 네트워크에 대하여 비인가 활동이 존재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행동이다. 대기만, 대심리작전은 적의 기만, 심리작전의 효과를 무효화, 무력화하거나, 그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한 노력이며 대정보란 적의 정보활동

에 대한 대응으로서 외국 정보기관, 테러집단 및 기타 세력의 불법적인 비밀행동으로부터 작전, 정보체계, 기술, 시설, 인원 및 기타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전자보호는 주로 전자전의 방어적 측면으로 우군 전투능력을 감소, 무력화, 혹은 파괴하는 아군 또는 적의 전자전 운용 효과로부터 인원, 시설 및 장비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둔다.

미국은 정보체계에 의존적이며 이로 인한 일반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적 정보제압은 정보전 분야에서 공군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 따라서, 지휘관은 자신의 지휘권 내의 방어적 정보제압 대비태세와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어능력은 상호 보완적이며 (즉, 어느 하나가 다른 능력의 대응책이 되거나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다) 공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네트워크 방어 활동은 정보체계를 방어하기 위해 가능한 신속하게 정보체계 보안의 틈새를 최소화해야 하는 반면, 대정보 활동은 적을 식별하고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접근이 허용되기를 원할 수도 있다. ⬇

항공정찰의 세계

제6639부대 표준화평가실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군사분야에서도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급격한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다. 미래의 전쟁은 무력에 의한 전면전의 양상보다는 정보전의 형태로 수행될 것이다. 즉, 타격과 기동전을 주력으로 하는 하드킬(Hard Kill) 방식에서 연동 통합력, 과학적 모의력, 지휘 통제 마비력, 정밀 타격력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킬(Soft Kill) 방식으로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정보우위(Information Superiority)하에서 정밀 타격에 의하여 승리를 유도하는 전쟁양상으로 미래의 전장은 그 개념이 바뀔 것이며, 플랫폼(함정, 전투기 등) 중심의 전투개념(PCW)에서 네트워크 중심 전투개념(Network Centric Warfare)으로 전환될 것이다.

현재 공군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정밀성과 파괴력은 극대화하고, 대응시간과 위협성은 극소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군사력 운용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다음의 3가지 분야의 기술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 ▶정보, 감시 및 정찰(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 ▶첨단화된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및 정보(Advanced C4I)
- ▶정밀 유도무기(Precision-guided munitions)

이들 중 정보수집은 전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평시에도 징후감시 및 정찰을 통한 정보획득은 매우 중요하다. 획득된 정보는 C4I 체계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공유되고 실시간으로 처리되며, 정밀 유도무기에 의해 표적을 파괴, 전쟁을 초기에 종결시킬 수 있다.

정보, 감시 및 정찰은 전장 전체의 우군 및 연

본격적인 항공사진 정찰기는

미국의 U-2 첩보기였다.

U-2는 1956년 7월 4일 최초로 구소련의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발틱해 상공을 비행하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확하고

세밀한 항공사진을 촬영하였다.

합군과 비전투요원들의 활동 및 상태, 작전지역의 기상, 지형, 전자기적인 특성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체계로서, 현재는 전장의 약 20%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나 장차 85~90%까지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즉, 빙산의 일각을 보고 나머지 부분은 유추하던 것을 앞으로는 빙산의 거의 대부분을 보게 될 것이다.

C4I는 첩보를 전달하는 기술과, 자료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이를 처리하는 기술로 구성되는 체계로서, 전장에서 수집된 첩보를 보다 정확한 정보로 전환시키고 표적을 자동 인지하여 전파한다. 정밀 타격력은 정밀 유도무기 이외에도 전투력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반 수단을 모두 포함하며, 표적 이외의 것은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의 정밀성을 갖는다.

항공정찰의 역사

항공정찰의 역사는 2차대전 이전 이후 냉전으로 인해 구소련 등 공산국가 상공에 대한 항공사진 정찰임무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자 1947년 B-47 6발 제트전략폭격기를 개조한 RB-47 정찰기가 사진정찰을 수행했으나 본격적인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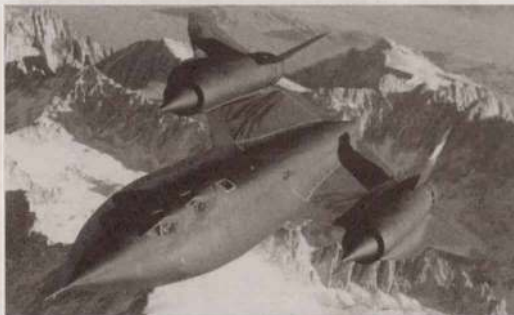
공사진 정찰기는 미국의 U-2 첩보기였다. U-2는 1956년 7월 4일 최초로 구소련의 모스크바, 레닌 그라드, 발티해 상공을 비행하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확하고 세밀한 항공사진을 촬영하였다.

U-2에 장착된 카메라는 초점거리에 따라 길이 1.5m 이상의 물체를 식별하거나 60cm 이상의 물체를 정밀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파노라마 카메라는 비행방향에 따라 좌·우 18.5km까지 촬영할 수 있는데, 이때 고도는 6만5천~7만피트(19,800~21,330m), 비행속도는 4백노트(시속 7백40km)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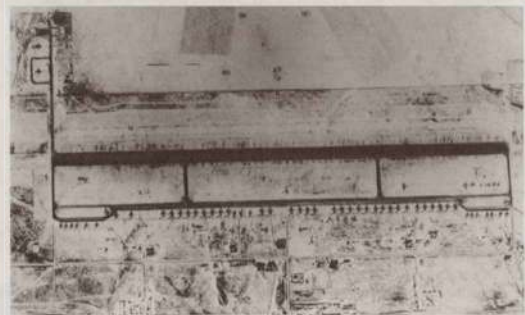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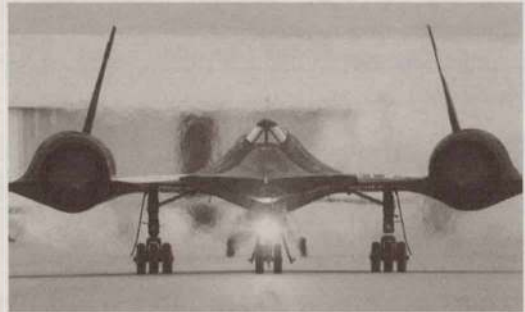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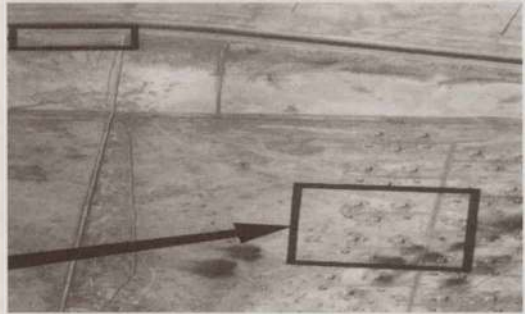
1960년 5월 1일 파워즈 대위가 조종하던 U-2가 구소련 영토에서 격추된 후 비행이 중지되었으나, 1962년 10월 쿠바에 대한 정찰비행을 실시하여 구소련이 실전배치한 공격용 중거리탄도탄(IRBM) 사진을 입수한 미국은 3차 대전을 각오하면서까지 해상봉쇄를 단행하여 IRBM을 철거시키는데 성공하였다.

U-2의 후계기로 초음속 정찰기 SR-71(속도 : 마하 3.0, 고도 : 2만4천m, 작전반경 : 4천8백km)은 미국 CIA 주관하에 196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전 배치되었다.

오늘날은 U-2나 SR-71 정찰기와 같이 사진촬영 정찰임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항공기는 정찰위성으로 대체되었고, U-2의 임무도 다목적 정찰로 변했다. 그러나 전술용 정찰기는 어느 나라든지 전·평시의 사진정찰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술정찰기라도 사진촬영만의 임무수행은 점차 사라질 것이며, 전투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정찰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정보수집은 전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평시에도 징후감시 및 정찰을 통한 정보획득은 매우 중요하다. 획득된 정보는 C4I 체계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공유되고 실시간으로 처리되며, 정밀 유도무기에 의해 표적을 파괴, 전쟁을 초기에 종결시킬 수 있다.



KT-1 최초 운용부대 217비행교육대대를 찾아서

편집실

217비행교육대대는 국산 기본 비행훈련기인 KT-1 항공기를 최초로 운용하는 부대로서 지난 2000년 6월 15일 창설되었다. 창설 이후 KT-1 운용을 위한 각종 교범 및 훈련절차 수립을 통해 비행훈련을 위한 기본토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KT-1 비행훈련을 중심으로 FFS(Full Flight Simulator), CPT(Cockpit Procedure Trainer), CBTS(Computer Based Training System) 등의 장비를 이용한 지상비행교육과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정예 전투조종사 양성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KT-1을 직접 운용하는 비행교관과 학생조종사들을 통해 KT-1과 비행훈련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KT-1 최초 운용에 대한 소감

교관조종사 대위 김봉성 : 국내 항공기술로 탄생한 KT-1 항공기를 이용하여 21세기 조국영공을 수호할 정예 조종사를 양성한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끼며 KT-1의 우수한 성능을 활용한 교육훈련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관조종사 대위 임형호 : KT-1은 우수한 엔진추력과 컨트롤, 안정적인 SPIN 특성으로 비행교육용 훈련기로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T-37과는 다르게 전·후방석 구조로 일반 전투기와 같은 COCKPIT 시야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종학생들이 중등비행과정 수료 후 고등훈련과정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초 국산 훈련기인 KT-1을 통해 후배 조종사들에게 비행의 기본을 가르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학생조종사 소위 김동현 : 저 역시 우리 기술로 만든 항공기로 비행훈련을 받게 된 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첨단장비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조종석을 갖춘 항공기를 타게 되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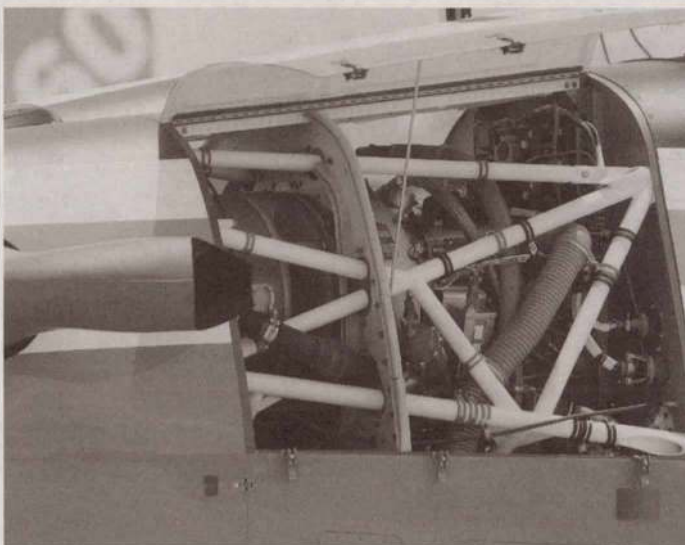
학생조종사 소위 정주희 : 다양한 항공기를 접해 본 기성 조종사들과 다르게 이제 막 조종을 시작하는 학생조종사들에게 KT-1 항공기는 다양한 기능과 우수한 성능으로 중등비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조종기량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CPT, SIMULATOR 등의 지상장비를 갖추고 있어 비행 전 실제 비행과 유사한 지상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가상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훈련기에 비해 훨씬 효과적인 비행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위 : 그렇습니다. KT-1은 이외에도 우수한 상승·가속성을 가지고 있어 체공시간 증가, 연료 비용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속도영역에서의 안정성과 완벽하게 갖춰진 비상계통은 탑승한 조종사들에게 항공기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합니다.

다양한 항공기를 접해 본 기성 조종사들과 다르게
이제 막 조종을 시작하는 학생조종사들에게
KT-1 항공기는 다양한 기능과 우수한 성능으로
중등비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조종기량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KT-1의 비행교육훈련 효과는?

학생조종사 중위 이현석 : KT-1 항공기는 안정된 STALL, SPIN 회복능력, 뛰어난 기동성, 단거리 이착륙 능력, 전투기와 같은 전·후방석 좌석배치, 최첨단 사출좌석, 판독이 용이한 디지털 계기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비행을 접하는 학생조종사들에게 타 훈련기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중기동의 제한도 훨씬 적어 비행기량 습득을 훨씬 용이하게 해 줍니다. 보다 능동적, 효율적으로 비행훈련을 할 수 있어 중등비행 훈련기로는 최적의 항공기라 생각합니다.





KT-1 항공기는 처음 비행을 접하는 학생조종사들에게 타 훈련기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중기동의 제한도 훨씬 적어 비행기량 습득을 훨씬 용이하게 해 줍니다. 보다 능동적, 효율적으로 비행훈련을 할 수 있어 중등비행 훈련기로는 최적의 항공기라 생각합니다.

KT-1 비행훈련 중 어려웠던 점은?

김 소위 : 비행훈련 중에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으나, 프로펠러 항공기의 고유 특성인 TORQUE 현상 때문에 비행훈련 초기에 조작상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AUTO RUDDER TRIM SYSTEM이 TORQUE 현상과 같은 프로펠러 항공기의 단점을 상당부분 보완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은 쉽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김 대위 : 저 역시 비행 중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KT-1 항공기로 교관 연성교육을 받을 때였는데, 대략 20시간 정도 비행을 했을 때입니다. 그 날도 연성교육 및 항공기에 대한 적응을 위해 여러 가지 기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TAIL SLIDE라는 과목을 하는 중이었는데 조작상의 과실로 인해 배면 SPIN에 진입되었습니다. 자세회복이 지연되어, 비상탈출을 결심하고 있는데 전방석에 탑승한 선배 교관 조종사가 회복조작을 실시하였습니다. 원인은 출력을 최소로 줄이지 않아서인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는 항공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하마터면 큰 사고를 당할 뻔 했습니다.

김 대위 : 전투비행단에 있다가 처음으로 훈련비행단에 온 가족 왁, “활주로에서 저렇게 모형비행기를 날려도 되나요?” 육중한 전투기만 보다가 작지만 날렵하게 움직이는 KT-1 항공기를 처음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정예 조종사 양성을 위해 217비행교육대대는 KT-1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 아들을 공군에 보내고...

공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 게시판에서



천리길을 달려 공군교육사령부에 아들을 보내고 나니 돌아오는 길이 이다지도 멀고 길단 말인가? 한국의 부모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나는 슬프기만 하다. 남들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도 젓비란내가 나는 어린 아들을 오늘부터 볼 수도, 말을 걸 수도, 나무랄 수도 없다는 사실이 눈물겹다. 20살이 되도록 어리광만 부리던 녀석이 공군을 지원해 합격해 놓고 입대일이 다 되어서야 알려준 관계로 따듯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교육사령부로 가는 동안 내내 집안을 걱정하던 그 녀석을 보고 '이놈이 언제 이리도 컸단 말인가' 하고 놀래기도 했다. 안개 낀 교육사령부 정문을 들어서며 흐르기 시작한 눈물이 앞을 가렸다. 헌병의 안내로 입소식을 지켜보면서도 왜 그리 안타까웠던지.

모여든 부모들 한가운데에서도 한 번이라도 그 녀의 얼굴을 더 보려고 자리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언제나 남자다움이 부족한 녀석이라 아버

의 군시절을 과장하여 말해 주었건만 컷등으로 들던 그 녀석에게 화가 나 때려주기도 했지만, 오늘따라 왜 그리 나약하고 어려 보이는지 모를 일이다.

돌아오는 길에 용케도 차를 알아본 녀석이 손을 흔들었다. 열린 차창문으로 같이 손을 흔들어 주었건만 서운하고 슬프고 안타가운 심정에는 변함이 없었다. 나 또한 군에서 20년을 보냈건만 이런 마음은 오늘이 처음이다.

옛날보다 좋아진 환경이라고 자위해 보지만, 그래도 염려되고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다. 공군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하던 공군장병에게 물었더니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교육하고 가르친다고 했다.

부족하고 모자랄지 모르지만 내 아들은 공군의 일원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노력할거라 생각한다. 공군의 교육과 전통을 이어 받아 국방의 초석으로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다.

우리의 아들들이 모든 훈련과 교육을 마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공군장병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

이제 나는 공군가족으로 거듭나게 된 것에 긍지를 느끼고 싶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모든 것은 참고 인내하기 나름이다.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기 전에 공군의 일원임을 명심하라. 멋진 공군의 일원으로 너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 휴가 나오는 날, 이 아버지와 술 한 잔 하자꾸나! 🍷

국민의 군대, 국민과 함께 하는 공군

- 제1전투비행단 장병 여러분께 -

공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 게시판에서



공군 최정예 부대인 제1전투비행단과 제가 살고 있는 덕흥마을과의 인연은 199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지금은 고인이 된 이상희 대위님은 비행훈련 중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자, 마을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기수를 돌려 애기(愛機)와 함께 산화하는 살신성인의 군인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우리 덕흥마을은 공군부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부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부대에서는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마을 노인 정을 위로 방문해 주고 농번기 일손 돕기, 의료 봉사,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며 돈독한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제1전투비행단 장병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지역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

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1전투비행단은 작년 덕흥마을에 위치한 시각장애인학교인 세광학교 학생들과 어려운 농촌현실의 유일한 희망인 마을 청소년들에게 공군사관학교 견학을 주선하여 멋진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올해 7월에는 학생들을 부대로 초청하여 자랑스러운 공군의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얼마전 세광학교 교감선생님을 뵈었는데 장애인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 제1전투비행단에 대하여 크게 고마워하셨습니다.

저는 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을회관 앞에 있는故 이상희 대위님의 추모비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용기와 삶의 지표를 찾습니다. 우리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주는 불사조,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장병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

신독(慎獨), 그대 홀로 있을 때 삼가하라!

제1전투비행단 중령 이 면 우

사서(四書)의 하나인 대학(大學)은中庸(中庸)과 더불어 원래 예기(禮記)의 편명(篇名)이었다. 그러나 이 두 편은 유교의 중요경전으로 인식된 결과, 단행본으로 편찬되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중국 송대의 주자에 의해 논어·맹자와 함께 사서로 병칭되어 유교경전의 대표로 추송되었다.

대학은 옛날 태학에서 사람을 가르치던 법이었다. 그 주된 내용은 “밝은 덕을 밝히고(明明德), 백성을 새롭게 하며(新民), 지극한 선에 이르게 하는(在止於至善)” 삼강령과 사물에 대한 본말과 일의 중시, 선후를 깨닫게 하는 여덟 가지의 조목(八條目 :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이다.

이는 학문을 하는 사람과 정치를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필수요목으로 주자가 살았던 과거에도 그랬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서도 해묵은 고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나

새벽이슬 같은 청정수인 것이다.

대학장구(大學章句) 6장에 보면 “이른바 그 뜻을 성실히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 악을 미워하기를 악취를 미워하는 것과 같이 하며, 선을 좋아하기를 호색과 같이 하여야 하니, 이것을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한 것이라 이른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것이다.【所謂誠其意者는 毋自欺也니 如惡惡臭하며 如好好色이 此之謂自謙이니 故로 君子는 必慎其獨也니라】”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는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도 학문으로서만 궁리하여 알음알이를 뽑내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그 앎을 실천하되 스스로에게 만족하게 할 것이요, 한갓 구차히 외면을 따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또한 그 마음의 진실됨은 남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니, 모름지기 군자라면 홀로 있더라도 그 언행을 진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제법 잘 나가는 사람들도 간혹 외면적인 행동은 그럴 듯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위선 투성이인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진실한 자기 모습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홀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보며 결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가을에 운동주님의 「서서」라도 한 편 읊조리면서 자신이 살아온 자취와 앞으로 살아갈 앞날을 위해 일생에 이는 바람을 보며 반추의 시간을 가져봄이 어떠할는지? ☹



忠 · 孝 · 禮

충효예 교육과 실천

충 · 효 · 예 교육 성공사례 발표회 최우수작

제11전투비행단 중령 장석현

여기 소(牛)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나무다리(一)가 있습니다. 과연 소가 외나무다리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아마 무척 힘들 겁니다.

이 소가 외나무다리 위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삶이라는 뜻의 생(生)자가 됩니다. 살아간다는 글자가 소가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모습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군대생활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건너야 할 몇 개의 외나무다리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건전한 가치관의 부재

누구라도 한번쯤은 오래된 사찰에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는 돌레가 몇 아름이나 되는 고목나무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과 모진 풍랑을 이겨낸 고목입니다. 비록, 잎이 시들고 가지가 꺾였을지언정 그 뿌리가 깊고 튼튼하기에 고목은 변함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뿌리, 즉 가치관이 건전해야 건강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식점에서 뛰어다니며 난리법석을 부리는 아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하면서 보다 못한 어른이 아이들을 나무라면 아이 부모가 나서서 “당신이 뭘테 남의 아이 기를 꺾으려고 하느냐”며 도리어 항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인성교육에는 소홀한 실정입니다.

사회적 모습은 어떠합니까? 기본과 원칙이 무시되고 법규나 규정을 어기는 것이 마치 삶의 지혜를 터득한 양 허세를 부리는 풍조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습은 또한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장병들은 확고한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개울을 흙탕물로 만드는 법입니다.

올바른 교육의 부재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에 문제가

군생활이 소가 외나무다리를 건너듯 힘이 들지만
한편으론 인생의 기회로 삼아 병영생활이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충·효·예 덕목을 실천하는
국민교육의 도장(道場)으로서,
여러분 각자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주춧돌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와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 단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즉시 훈계하고 아이의 엉뚱한 요구에는 “안돼”라는 말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의 어떤 잘못을 보고도 그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자라는 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예의와 규칙과 법을 지키는 것을 체질화하고, 사람과 사물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눈과 마음을 열어 주는 것. 그것은 바로 교육만이 할 수 있고, 또 교육이 반드시 말아야 할 ‘기본’입니다.

그러면 군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교육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미래에 이 나라의 주역이 될 병사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올바른 행동양식을 보여주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충·효·예의 개념과 실천

나라를 위한 충성은 역사에 남을 만한 거창한 것만이 결코 아닙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은 오직 나라를 위하는 ‘참된 마음으로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나라 일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소.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일

로, 논에서 김을 매는 사람은 호미로, 술밭에서 나무를 하는 사람은 낫을 가지고 나라 일을 하고 있는 셈이오”라고 하셨습니다. 군생활에서의 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군인으로서 조국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수호하며, 상관의 지시에 진실된 마음으로 따르고,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란 부모를 섬기는 도리, 부모에 대한 자식의 정성, 아랫사람이 어른의 뜻에 따르는 예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경과 정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정성으로 길러 주셨으니 부모님께 항상 감사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생활에서 ‘효’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애를 베풀고,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처럼, 병영생활에서도 상급자는 부하를 부모 입장에서 사랑으로 이끌고 하급자는 부모님을 대하듯 지휘관을 아버지로, 간부들을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예는 군인의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적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평소 명령에 대한 복종을 생활화하고, 규율과 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며, 상·하급자간에 군대예절을 잘 지켜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도록 하는 작은 사랑의 나눔이 ‘예’라 하겠습니까.

목수가 아무 의미도 모른 채 나무를 자르고 대패질하고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멋진 집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작업을 하듯이, 여러분의 군생활이 장차 사회에 나가 멋진 포부를 펼치기 위한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군생활이 소가 외나무다리를 건너듯 힘이 들지만 한편으론 인생의 기회로 삼아 병영생활이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충·효·예 덕목을 실천하는 국민교육의 도장(道場)으로서, 여러분 각자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주춧돌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

당신, 괜찮으세요?

방송작가 김 은 희

“괜찮으세요?”

가끔 이런 질문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아니, 안 괜찮아”라는 대답을 들을 때면 나도 모르게 빙그레 웃음이 나오고 만다. 안 괜찮으면 그렇다고 쉽게 얘기해주는 솔직한 방심의 상태가, 뜻밖의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대답이, 좋다.

하지만 정작 내가 그런 질문을 받게 될 때면 사정이 좀 달라진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래 어때? 나 괜찮은 거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짧은 순간, 그 순간의 표정을 들키는 게 별로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애초 그런 질문 따위 없었다면 의식하지 않고 쉽게 지나칠 수도 있었을텐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심상한 표정으로. 하지만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이미 머리 속은 잊어도 좋을 일들이 줄줄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괜찮으세요?”

그 질문은 그러니까, 하는 사람에겐 친절함과 배려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질문에 뜨악한 반응을 보이거나 다소 원망 섞인 눈빛을 보내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질문한다. 100번에 한번쯤 돌아올 솔직한 방심의 상태, 뜻밖의 친밀감을 기분 좋게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그 물음이 뜻하지 않은 ‘역지사지’의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괜찮으세요?”

며칠 전에도 누군가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그것도 처음 만난, 이름도 모르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누군가에게 말이다. 상대는 세일기간에 맞춰 누군가의 선물을 사러 들렀던 백화점의 점원이었다. 열심히 뒤져봤지만 아무래도 정답이 안나와 만만한 상품권을 사러 갔다가 만나게 된 상품권 판매대의 여직원, 그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복잡거려 할 수 없이 은행처럼 순번 대기표를 뽑아들고 차례를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한 곳의 번호는 계속 바뀌는 데도 다른 한 곳의 번호가 계속 같은 숫자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궁금했다. 상품권 하나 사는데 뭐 저러 오래 걸리나. 내 순서가 돼 자리에 앉고 나서야 사태를 알게 됐으니, 옆 좌석의 손님이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무려 50장이나 사는 거물이었던 것이다. 그런 손님을 일컬어 ‘브이아이피(VIP) 고객’이라고 한다던가. 고작 7만원짜리 상품권 한 장 달랑 손에 쥐려고 기다렸던 나는 그만 제풀에 멧쩍어져 괜히 고분고분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 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참으로 부아가 치밀지 않을 수 없었으니, 그것이 사단의 시작이었다.

카드 한도액 있으세요?

몰라서 물어? 내 참, 확인해보면 될 거 아냐.

(묵묵히 투닥투닥) 네, 확인됐습니다.

일 좀 제대로 처리 해. 이게 뭐야, 이렇게 계속



기다려야 돼?

(상품권 세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세어보십시오.

(상품권 세면서) 근데 꼭 이런 데서 팔아야 돼? 이게 뭐야, 사람들한테 쪽팔리게. 뭐 이따위야? 명색이 일류백화점이라는 데가 손님을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거야?!

백화점 로비에 막 들어서자마자 바로 위치한 상품권 판매대. 복작거리는 실내 깊은 곳이다. 아니어서 좋은 건 아무래도 나같은 '서민'들에게나 있을까? 모르는 바 아니다. 그는 어디론가 '좋은 곳'으로 안내돼 차 한 잔이라도 '특별대접'을 받고 싶었던 거다. 그 사람이 가진 힘은 나의 7만 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5백만원 아닌가. 그 남자 앞에서 고양이 앞의 쥐마냥 앉아있는 아가씨와, 근심어린 눈으로 그 동료의 눈치를 살피는 내 앞의 아가씨 표정에서, 나는 그 5백만원의 힘을 더욱 실감해야 했다.

다음 순간 장난기가 발동한 나. 내 앞의 점원에게 소리내어 묻고 말았다.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도 손님들이 막 만발하고 그러나요? 그런 손님 만나면, 나 같으면 무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죠?" 내 의도가 전달된 걸까? 처음엔 놀란 듯한 표정이던 그 아가씨, 잠시 후 생글거리는 웃음을 섞어 재치있는 대답을 한다. "요즘 손님들 안 그러세요. 그런 분이 있더라도 저희 고객이시니까 더 친절하게 대해 드려야죠."

문제의 그 남자, 우리의 대화를 못 들었을 리

없다. 그런데 참 못됐기도 하지, 일어서면서 점원 아가씨에게 마지막 비수 하나를 날리는 게 아닌가. "똑바로 좀 해. 이런 일도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무슨 일류백화점이야, 같잖게. 에이, 이런 데 있는 것들 다 그렇지."

이런,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튀다니. 괜시리 미안해진 나는 걸어가는 그 남자의 뒷통수에 대고 씨익, 비웃음을 날려준 뒤 마무리 멘트를 더했다. "자기 아빠가 밖에서 저러고 다니는 줄 애들은 아나 몰라." 그리고 고개를 돌려 아직 우울한 빛이 가지지 않은 그 여직원에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손님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나의 지인은 백화점에 가면 일부러 왕비처럼 행세한다고 한다. 마음에 드는 옷 죄다 입어본 뒤 빈손으로 나오는가 하면, 불친절한 점원들에겐 일부러 큰소리로 화를 낸다는 것이다. 손님들 대하느라 쌓이는 스트레스를 자신이 손님이 되는 순간을 즐기며 푼다니, 땀엔 그 심정 이해 안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빈곤의 악순환'처럼 스트레스에도 악순환이 있다는 사실을 종종 모른 채 하는 것 같다.

만약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괜찮으세요?" 질문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그의 표정과 대답에 주의를 기울여본 경험이 있다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조금은 흔들어볼 수도 있으련만. 그런 생각을 하며 복작거리는 백화점을 나왔다. ☹



마지막 비행을 하는 F-86F 전투기 편대(1990)

새삼 놀라게 된다.
저 오래된 기억 속의
육중한 동체가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하늘을 날았다는 것에.

강렬한 파열음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던 기억.

그때,
그 기억 속에서
뒤로 밀려나는 자신을
어렵풋이 느끼며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을
은빛 동체를
망각의 소실점에서
어렵게 끌어낸다.

새 것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새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항공기 사진의 세계

항공기 사진작가 김 태 협(www.aircraftphoto.co.kr)

인간이 새처럼 날고 싶어했던 꿈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신화나 문학, 그림 등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리는 풍경화나 정물화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사진이 기록을 위한



황에서 기록, 취미, 광고, 예술작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사에는 사진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와 항공기만을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며, '스포팅'과

매체로 사용되면서 항공기 사진의 본격적인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동력비행에 성공할 때 세계의 많은 발명가들 역시 동력비행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에는 비행에 성공했다는 글과 그림만 실려 있었을 뿐이었지만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동력비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비행을 담은 사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이트 형제의 동력비행 이후 항공기 제작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1·2차 세계대전에는 군사목적의 지도제작 및 자료수집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한 사진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군비 각축전이었던 냉전시대에는 비밀리에 수집된 사진을 통해 상대국 항공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자료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오늘날 항공사진은 항공기를 이용해 지상이나 지상의 물체를 찍는 '항공사진'과 항공기만을 주제로 찍는 '항공기 사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일반 대중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보급되면서 항공기 사진은 비밀스럽게만 취급되던 상

같은 항공기 사진 취미와 함께 미디어를 통한 항공기 사진 활용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아직 항공기를 찍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냐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공항의 시설물들이 중요한 보안시설물로 분류돼, 여객기를 촬영하는 스포터들의 인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공군을 대표하는 곡예비행팀이 창설된지는 매우 오래되었지만 1996년에야 본격적으로 에어쇼가 시작되었고 이후 1999년 청주·안산에어쇼, 2001년 서울에어쇼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열린' 에어쇼가 가능해 짐에 따라 이제 막 항공기 사진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기 사진의 세계는 계속해서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기 사진은 항공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수많은 조종사와 정비사, 우주비행사, 그리고 미래 항공인의 꿈을 간직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소중히 키워올 수 있었던 데에는 항공기 사진과 항공영상물들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클림트, 황금빛 가득한 몽환적 에로티시즘

대전매일 문화부 기자 권도연

키스와 함께 온 클림트 열풍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은 언어권에 따라 비인 또는 비엔나로 불린다. 빈이건 비엔나건 이 도시를 부르는 어감은 '비엔나 커피' 만큼이나 달콤하고 부드럽다. 연인의 촉촉하게 젖은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댈 때의 그 감미로움이 느껴지는 어감이다.

그런 영향 때문일까. 빈을 대표하는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 1862~1918)는 일생을 통해 일관되게 관능미의 세계를 탐구하며 그 쾌락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어 우리에게 '키스'를 남겼다.

화려한 채색과 여성성으로 초상화와 누드화에 천착한 에로티시즘의 대가. 클림트는 그림 그리는데 이들 사이에선 모르는 사람이 드물지만,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그의 그림이 최근 인기다. 연인들이 자주 가는 카페에 복제화로 내걸리는 그림 1순위로 '키스'가 꼽히는가 하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에게 주는 선물로 이 그림이 있는 아트상품이 많이 나간다고 한다.

클림트의 선풍적 인기는 요즘 미술관련 서적 시장을 봐도 알 수 있다. 미술서적 출판계의 새 별로 떠오른 다빈치의 경우 지난 7월말 나온

『클림트』의 초판 5,000부가 3주만에 품절되더니, 9월말 3판을 찍으며 발행 2개월만에 1만부 돌파의 꿈을 이뤄냈다. 이외에도 프랭크 휘트포드의 『클림트』(시공사)가 나오더니 열화당에서도 제3의 '클림트'를 준비중이라는 소식이다. 지난 10여년간 단 2권의 빈약한 목록을 갖고 있던 클림트가 대중적인 인기 작가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관능과 허무, 성에 대한 집착

클림트는 색 중에서 가장 화려한 색이라는 황금색을 더 화려하게 쓸 줄 아는 화가이다. 환하고 시각적인 중독이 강한 노란색을 더욱 화려하고 질게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시선을 꼭꼭 묶어둔 것이다. 그의 황금빛 그림 '키스'를 보고 있노라면 두 번 놀라게 된다. 황금 빛깔과 추상적인 문양과 함께 몽환적이며 에로틱한 연인의 모습이 빛어내는 황홀경에 놀라고, 합일과 충만함으로 빠져드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원인 모를 허무와 슬픔에 다시 한번 놀란다.

화려하고 관능적인 클림트의 화풍에는 남자가 없다. 꿈꾸는 듯한 여성이 주를 이루는 그림에서 남성은 여성을 드러내기 위한 소품이나 보조



수단으로 나온다. 남성은 등을 보이거나 뒤통수를 보이고 있으며 얼굴을 드러내더라도 여성을 묘사해내는 배경일 뿐이다. 주로 신화 속의 여신이나 여걸, 그리고 빈의 상류층 여성들을 모델로 한 관능적이고 도발적인 그림이 대부분이다. 물론 강한 남성상을 꿈꾸던 로마시대도 아니고, 또 관능적이라는 게 남성과는 동떨어진 이미지인 탓도 있다.

그의 대표작 '키스'에서 얼싸안은 두 사람의 신체는 언뜻 보기에 호화롭고 화려한 비잔틴풍의 모자이크 문양으로 채워져 있다. 그렇지만 보는 방법을 달리하면 검은 장방형은 남성의 성기(남근)를, 각양각색의 원형과 타원형은 여성의 성기를 기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장식은 에로틱한 성의 암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다. 분명히 클림트의 다른 작품의 대부분에서 검은 장방형, 컬러풀한 원형이 의미 있는 듯이 등장한다. 더구나 남녀를 감싸는 황금빛의 실루엣, 이것도 남근의 이미지를 유발한다. 또 X선 투시에 의하면 클림트가 그린 대부분의 인물에는 미리 극명하게 성기가 한결같이 묘사되어 있고 그 위에 의상 등이 묘사되어져 있다는 속설도 전해지고 있다. 현란한 장식으로 감추어진 집요하기까지 한 성기의 은유. 클림트는 왜 그렇게도 '성'에 집착했던 것일까. 거기에는 단순한 에로스 그 이상의 무엇이 잠재되어 있다.

클림트는 여성을 어디까지나 에로틱한 존재로서 묘사하려고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는 여성들에게서 개성을 빼앗아 버렸다. 그림 속의 여성은 황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가사의하게 냉정하

기도 하다. 육체적 접촉을 서로 빼앗는 것으로 본다면, 키스는 흡혈(吸血)의 행위이기도 하다. 항상 성과 죽음을 동시에 묘사하는 것이 화가 클림트의 에로스이며 이 모순이 작품 전체에 긴장을 낳고 있는 것이다.

대체 어떤 사랑을 했을까?

여성에 대한 클림트의 집착은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반영했을 뿐 아니라 클림트를 둘러싼 가정환경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의견상으로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그럴듯한 근엄주의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에게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노동자층으로 클림트의 두 아들을 낳은 미지를 비롯해 27년간 플라토닉한 사랑을 나눴던 에밀리 플뢰게, 유일하게 두 작품의 모델이 된 아델바우어 부인 등, 그는 그림의 모델이 된 수많은 빈 상류층 부인들에 둘러싸여 '빈의 카사노바'로 불리기도 했다.

만성적인 정신질환에 시달렸던 어머니와 어린 누이, 그리고 그들의 갑작스런 죽음은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이어지면서 화풍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여성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실감하게 되었으며, 특히 새 생명의 잉태와 탄생을 주관하는 여성만이 가진 특권에 대한 경이로움과 신비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19세기 후반 과학과 합리성의 세계, 지배와 복종의 세계를 넘어서는 탈출구를 여성성에서 찾은 클림트에게 여성은 욕망과 매혹의 대상이자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



키스



삶과 죽음



글 쓰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충고 『유혹하는 글쓰기』/스티븐 킹 著/김영사

KBS 국제부 기자 이진성

미스터리 분야의 대가 스티븐 킹은, 따로 작품을 나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작가다. 영등포나 동대문 전철역 주변, 딸이로 파는 간이서점에 가도 그의 책 한두 종쯤은 없는 데가 없다. 활자화된 소설이든 원작을 바탕으로 한 영화를 통해서든 그의 작품과 마주쳐 본 사람이라면 그가 글쓰기에 탁월한 재주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과연, 그는 '유혹하는 글쓰기(원제 : 글쓰기에 관하여 On Writing)'에서 그 명성에 걸맞게 글을 쓰는 재능은 타고 나는 것이라고 운을 뚫는다. 하지만 그의 잘난 척(?)은 재능이란 게 자신이 '괜찮은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라는 걸 알고(쉽게 말해 자기 주제를 알고) 좀더 잘 쓸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글쓰기에 매

진할 수 있는 의지란 걸 강조하기 위한 수사(修辭)다.

그의 삶은 유년기부터 글을 잘 쓰기 위한 길찾기의 과정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10대 초반, 처음 잡지에 투고한 이래, 끊임없이 이 잡지, 저 잡지에 글을 써 보내곤 무수히 많은 퇴짜 원고를 돌려 받은 이가 바로 스티븐 킹이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게 가장 큰 미덕일지 모른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속단하지도 않고 가능성을 포기하지도 않으며 희망을 품었다. 20대 초반 시 쓰는 아내와 결혼하고, 밥벌이를 위해 세탁소에서 허드렛일을 하면서도 시간을 쪼개 계속 글을 썼던 그는 마침내 1974년, 처음으로 출간한 소설 '캐리'로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이름을 올린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글 잘 쓰고 싶다는 욕심만 넘치는 나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주저 없이 스티븐 킹의 이 책을 추천하겠다.

이후 30년 가까이 오직 글만 써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일본 작가 마루야마 겐지나 우리나라의 소설가 장정일을 연상시킨다. 유와 격은 다를 수 있지만 이들은 모두 다른 직업 없이 글을 통해서만 자신의 삶과 승부한다.

물론 글쓰기란 홀로 된 작업이며 고된 노동이다. 킹 또한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책 곳곳에서 '글쓰기는 외로운 직업이다. 그냥 믿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때로는 쓰기 싫어도 계속 써야 한다'고 털어놓는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결코 완벽하게 종이에 옮겨 적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과 끊임없이 글을 써야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압박. 그 사이에서 킹은 '제아무리 글을 잘 써도 대개는 본래의 의미를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쓰고 또 썼다.

당연히 그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한창 펜 끝에 탄력이 불을 무렵인 1970년대 중반 이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알코올에 빠져 있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네덜란드인이 제방을 쌓는 심정으로 변명을 준비한다'는 말로 그 시절을 회상하고 있지만 평생의 반려일 줄 알았던 아내의 최후통첩마저 받게 되자 그는 의외로 차라리 글쓰기보다 가족을 선택한다. '설령 글을 못 쓰게 되더라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편이 낫다.' 바로 생활에 충실하려는 태도가 그를 알코올 중독의 수렁에서 건져냈다.

이 책에서 스티븐 킹이 글쓰기에 관해 던지는 아포리즘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글쓰기에서도 자기가 가진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연장들을 끌고루 갖춰놓고 그 연장통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팔심을 기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으면 설명 힘겨운 일이 생기더라도 김이 빠지지 않고, 냉큼 필요한 연장을 짊어두고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충고는 욕망만 앞서고 글쓰는 노력은 게으른 문청(文靑)들에게 약이 되는 고마운 말이다.

이 밖에 '글을 쓸 때는 문을 닫을 것', '글을 고칠 때는 문을 열어둘 것', '평이하고 직설적인 표현', '언제나 독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글이란 다듬어진 생각이다' 등의 구절은 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밑줄 쳐가며 읽었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글 잘 쓰고 싶다는 욕심만 넘치는 나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주저 없이 스티븐 킹의 이 책을 추천하겠다. ⚡



흠어진 마음, 〈겨울나그네〉

서울시 교향악단 양창섭



슈베르트의 음악에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미묘한 정서가 흐르고 있다. 이것은 후대의 낭만주의자들처럼 과장된 것도 아니고, 고전주의자들처럼 절제된 것도 아니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하며 또한 소박하다. 이것이 슈베르트를 아직까지 우리의 뇌리에 기억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고전주의의 대가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뒤를 이었던 슈베르트는 낭만주의로의 문을 열기도 하였다. 이렇게 사조가 교차하는 시기의 작곡가는 그 모호한 성격 때문에 음악사에서 잊혀지기 쉽다. 그럼에도 슈베르트는 음악사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것은 그가 타고 났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자신만의 정조로 자신의 음악들을 장식한 때문일 것이다.

슈베르트의 음악에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미묘한 정서가 흐르고 있다. 이것은 후대의 낭만주의자들처럼 과장된 것도 아니고, 고전주의자들처럼 절제된 것도 아니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하며 또한 소박하다. 이것이 슈베르트를 아직까지 우리의 뇌리에 기억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클래식을 잘 몰라도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나 〈보리수〉, 〈들장미〉, 〈송어〉, 〈음악에〉를 듣고 흥얼거리지 못하는는 어렵다. 이 노래들을 모른다면 베토벤의 교향곡 5번도 알기 힘들 것이다.

노래만이 아니고, 다른 장르의 곡들에도 슈베르트의 서정은 정말 '넘쳐난다'. 그리고 상당수는 쓸쓸하고 멜랑콜릭하다. 6개의 소품으로 이루어진 '악흥(樂興)의 순간' 중 세 번째 곡은 지극히 경쾌하고 빠르지만 어딘지 모를 쓸쓸한 아름다움이 있다. 유작으로 남겨진 〈피아노 소나타 20번 D.959〉 2악장의 느린 아름다움은 천박하진 않지만,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 멜랑콜릭한 것이다(올해 머레이 페라이어라는 피아니스트는 내한공연에서 이 곡의 멜랑콜리를 피아노의 울림과 소리의 여백을 통해 완벽하게 표출했다). 영화와 광고에도 사용되어 유명해진 〈피아노 3중

주 D.929)의 느린 악장은 또 어떠한가. 이 곡이 불륜을 다룬 영화들에 사용된 것은 그 아름다움의 퇴폐성 때문이 아니겠는가. 슈베르트는 정말 이런 멜로디들로 작품목록을 꽉꽉 채웠다. 가을에 듣기에 딱 좋은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나 <죽음과 소녀>, 혹은 낭만주의 피아노 음악을 열었다고 할 만한 <죽음곡> D.899와 D.935도 마찬가지다. 적절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의 음악은 김소월의 시에 비길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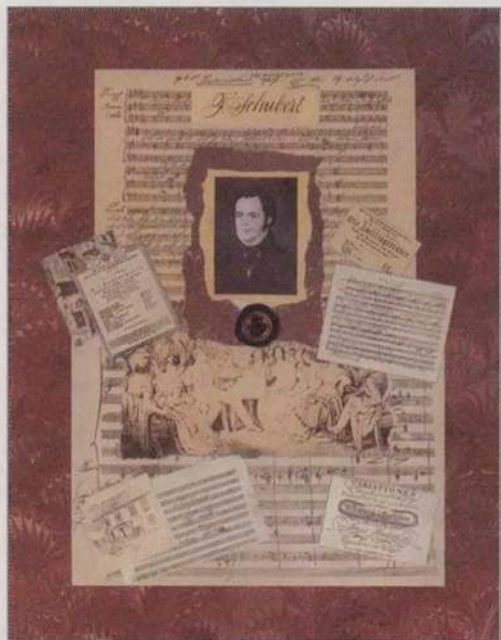
이런 슈베르트의 애조 띤 아름다운 음악들은 말년(서른 하나에 요절했으니 20대 후반부터가 말년인 셈이다)에 이르러 비관주의의 극단으로 치닫는데, 그 정점에 있는 작품이 연가곡 <겨울나그네>(원제는 '겨울여행')다. 빌헬름 뮐러의 스물네 편 시에 곡을 붙인 이 노래들에서 슈베르트는 시의 화자인 '나그네'에게 완벽하게 동화된 듯 문학적으로 높이 평가될 수 없는 시를 불멸의 것으로 만든 음악을 보여주었다. 스물네 곡 중 열다섯 곡이 단조곡이며 장조로 시작되는 곡들도 단조로 바뀐다는 사실은 이 곡의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모차르트의 수없이 많은 곡들 중에서 단조곡은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며, 베토벤도 이만큼은 아니었다. 슈베르트의 심성과 정서는 항상 '마이너'였던 것이다.

화자는 자신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상념에 잠긴다. 눈물은 얼음도 녹여버릴 듯 뜨겁게 가슴에서 솟아났는데, 왜 다시 얼음으로 변해 버리는가. 이어지는 곡에서 시인은 그녀와의 추억이 서린, 그러나 지금은 꽃도 풀도 없어서 그 추억의 증거가 사라진 풀밭에 있다. 겨울은 바로 얼어붙은 마음이다. 그래도 그는 사랑을 확인하고자 한다. '홍수'처럼 흐르는 그의 눈물은 흐르고 흘러 그녀의 집 앞에 가 닿는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도깨비불의 장난이며, 슬픔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이 그를 가로막는다. 그의 영혼은 너무나 피폐해 있다. 잠시 잠깐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날의 꿈을 꾸지만, 다시 냉혹

한 현실이 그를 일깨운다. 까마귀가 그를 따라다니며, 단잠을 자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그는 괴리감을 느낀다. 이제 그를 위안해 주는 것은 현실에 없으며 오로지 환상뿐이다.

심하게 말해서 정신병자에 가까운 극단적인 심리상태를 그린 빌헬름 뮐러의 시를 슈베르트는 더욱 아름답고, 더욱 슬프고 격정적인 음악으로 채색하였다. 열한 번째 곡 '봄꿈'에서 아름다운 꿈을 그린 전반부와 꿈이 깨어지는 중반부, 깬 후의 슬픔과 비애를 그린 후반부는 슈베르트의 음악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짙막한 곡에서 다양한 감정을 기품있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그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정서적 풍부함 속에서 낭만주의는 배태되었던 것이며, 가곡에서 그의 성취는 슈만과 볼프, 슈트라우스를 미미하게 만들었다.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DG)와 한스 호터(EMI)가 부른 음반이 품격을 잃지 않고 <겨울나그네>의 정서를 전달한다. 테너 크리스토프 프레가르디엔(DHM)과 페터 슈라이어(Philips)의 것은 그 격렬한 정서에 주목하고 있다. ⊕





우아하고 감상적인 조선 베สบ올 - YMCA 야구단 -

영화평론가 김지훈

글공부보다 '돼지 오줌보' 축구를 더 좋아하는 선비 이호창(송강호)은 우연히 YMCA 회관에서 야구를 하는 신여성 민정림(김혜수)과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렇게 신문명 야구에 대한 호기심에 빠져든 호창과, '황성 YMCA 베สบ올단원 모집'이라는 벽보를 보고 모여든 각계각층의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모여 조선 최초의 야구단이 결성된다. 신들린 연전연승으로 황성시민의 자랑거리가 된 야구단은, 을사조약 이후 민정림의 아버지가 자결하고 일본군 클럽팀 성남구락부와의 대결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위기를 맞는다. 팀의 기둥인 일본 유학생 오대현(김주혁)과 민정림이 친일파 테러단체의 일원으로 수배를 당하면서 YMCA 야구단은 해체된다. 그들을 추격하던 통감부는 YMCA 야구단과의 2차 대결을 마련하고, 오대현과 민정림은 위험을 무릅쓰고 시합에 임하기로 결심한다.

최근의 한국영화는 바로 그 신화적 세계를 대중적 이야기로 개작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변조하거나, 잊혀졌던 역사적 사실을 복원한다. <2009 로스트 메모리즈>가 교과서 연대기처럼 기억하는 과거의 꺾박에 대한 기억상실을 전제로 '가공'의 이야기를 꾸며나갔다면, <YMCA 야구단>은 박물관과 도서관의 먼지더께 밑에서 잠자던 사료와 문헌들을 꺼내어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이미지의 현실적 생생함은 흠잡을 데가 없다. 특히 갓과 상투, 한옥 등 전통 문물과 자전거와 전차 등 신식 문물이 교차하는 종로 거리의 이미지는 당대 기록 사진의 분위기를 입체적으로 재현한다. 여기까지는 성공적으로 선취점을 획득했다. 그리고 <반칙왕>에서 유감없이 관객을 쥐락펴락했던 송강호의 '썰렁 코미디'도 꾸준히 관객의 점수를 따 준다. 베이스를 무시하고 외

야를 사방천지로 줄달음질치는 단원들의 모습처럼, 야구 규칙을 몰라서 벌어지는 해프닝은 꾸준히 주자를 진루시킨다. 이호창이 민정림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문상 갔다가 망자(亡者)의 유언 대신 정림을 연모하는 호창의 연애편지가 낭독되는 장면은 주자 일소 3루타 감이다. 그런데 '을사 50적' 사건으로 야구단이 와해되는 과정에서 회를 거듭할수록 야구단은 다이아몬드를 벗어나기 시작한다. 을사조약으로 YMCA 야구단에게는, 풍전등화에 처한 민족주의의 수호자이자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승화시키는 배우로서의 역할이 함께 주어진다. 결국 영웅주의라는 '핀치 히터'가 기용될 수밖에 없다.

할리우드의 시대극에 충실하게 탄생한 이 야구단에게 과거라는 외야석을 강타하는 화끈한 홈런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거기에 만족한다면 이 영화는 '우아하고 감상적인 조선 야구'로 손색이 없다. Ⓡ



런던 시내 한복판을 통과하는 테임즈강의 다리 중에서 가장 유명한 타워 브리지

글·사진 사진작가 김 석 종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흔히 던지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단편적이다. 영국인들은 음흉하고, 프랑스인들은 각쟁이들이고, 이태리 사람들은 한국사람과 변죽이 통한다는 식의 말은 실제로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말들이다. 장님이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지고 나서 코끼리가 어떻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코끼리 우화는 실지로 여행을 깊숙이 해본 이들에게는 더욱 공감되는 이야기다. 말하자면 그 나라를 알면 알수록 잘 모르게 된다는 표현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인 것이다.

영국으로 떠나기 전 주위의 여행객들로부터 들었던 것은, 영국은 다른 서유럽나라에 비해 한 마디로 '좀 후졌다'는 말의 각기 다른 표현들이었다. 날씨가 엉망이고, 건물은 낡았고, 음식은 영 아니다는 말부터 심지어는 옛날에는 해가 지

지 않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거지나라라는 말까지 들었었다. 그러나 영국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니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몇 가지만 제외하고 다 틀린 이야기들이었고 엄청난 오해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대개의 여행객들은 런던을 투어버스로 휘둘러보고 피카디리 서커스 근처에 있는 중국식당에서 단체식사를 한 후 테임즈 강 근처에서 빅벤 시계탑을 배경으로 사진 몇 컷 찍고 나서 서둘러 파리로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영국의 진면목이 소박하게 살아있는 교외를 둘러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영국의 시골을 차를 몰고 살살이 둘러본 결과는, 한 마디로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이다. 같이 동행한 영국살이 30년의 선배와 밴에서 타고 밥도 한식으로 계속 해 먹으면서 보고 느낀



코츠월드 지방의 대표적인 유적도시인 코프 카슬

영국의 시골은 내가 보았던 어느 유럽의 시골보다 정감이 넘치는 곳이었다. 밴을 타고 우리가 다닌 곳은 영국의 북서부 컴버랜드(Cumberland) 일대의 Lake District 지방과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골로 알려져 있는 풀색의 마을 코츠월드(Cotswolds), 그리고 스코틀랜드 북서해안들이었다.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조금 큰 영국을 여행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굉장히 넓은 나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그 이유는 평지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빙하가 국토를 깎아내려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전국토가 산이 없는 구릉지대와 평지이다. 한국과 같이 평지가 계속되다가 산으로 가로막히는 답답함 없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풍경들이 영국이 넓은 나라라는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 같다.

Lake District에 도착한 날은 영국 특유의 구름이 겹다가 짙고 해가 잠시 나타나는 날씨를 보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Bowness(보네스)를 지나 작지만 보석같이 예쁜 Grasmere(그라스미어) 호수로 차를 몰았다. 길을 가다가 야구게임의 원조격인 크리켓 경기를 신기하게 구경하고 그라스미어 호수에 다다랐다. 호수에는 배들이 떠 있고 호수가에 있는 야외 찻집에선 영국의 명물인 홍차를 마시며 햇살을 즐기는 영국인들이 여유로운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영국의 자연주의 시인인 Wordsworth가 9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듯이 그라스미어 호수 인근은 온화하고 아기자기한 풍광으로 가득차 있다. 호수지

방이기는 하지만 인근의 지역은 전부가 농촌지역으로 소와 양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과 그림 같은 전원주택들이 한 폭의 서양화를 연출한다. 좁은 산길을 거쳐 앰블사이드, 케지크, 켄달, 펜리스 호수들을 돌아보는 동안 영국의 호수지방이 왜 알프스 지방이나 이태리의 호수지역과 다른지 느낄 수 있었다. 결코 크다 할 수 없는 호수와 구릉에 가까운 야트막한 산들에 둘러싸인 호수의 얼굴은 어머니의 온화하고 포근한 느낌을 자아낸다. 호수 주변 캠핑장에 물려있는 캠프카들과 늘 조용하게 길거리를 오가며 가벼운 웃음을 띄우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유롭고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최고의 행락(行樂)으로 여기는 영국의 놀이문화를 엿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전통에 집착하고 옛 것을 좋아하는 영국인들의 민족성을 발견하려면 Cotswolds(코츠월드)로 가야 한다. 런던에서 북서 방향으로 160킬로미터 떨어진 구릉지대에 산재해 있는 코츠월드는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다. 영국의 황실을 비롯하여 상류계층의 별장들이 많은 곳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보아도 이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가늠케 한다. 코츠월드의 대표적인 도시인 치핑캠든은 중세시대의 건축양식을 그대로 이어 받은 거리풍광이 압권이며, 코츠월드의 베니스로 불리우는 버튼 온 더 워터(Burton-on-the-Water)에 가면 마을 사이사이에 개울이 흐르고 다리가 이태리의 베니스 마냥 걸쳐 있는 것이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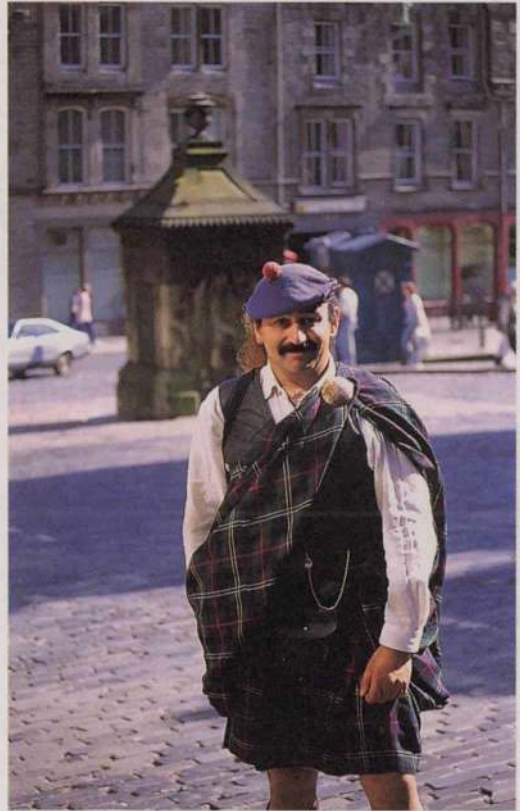
영국의 시골에 가면 양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그림같은 풍경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영국 조지아식의 완전한 형태가 보존된 바스(Bath)에는 로마시대의 목욕탕터가 남아 있으며 남쪽에 떨어져 있는 코프 카슬(Corfe Castle)은 16세기의 성터가 남아있고, 성터 밑으로 마을들이 자리잡고 있어 가장 멋진 마을로 알려져 있다. 코츠월드의 도시들은 최소한 4~5백년의 건축물들로 즐비하다. 그리고 이 건물들과 집들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집들의 지붕은 돌판들을 겹쳐서 올리고 집의 구조물을 받치는 서까래는 어마어마하게 굵은 미송을 써 무게를 지탱한다. 집 안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집도 있지만 대부분 옛날 스토브나 욕조를 지니고 사는 것을 부러워한다. 그저 옛날 것이라면 가리지 않는 것이 영국인의 특질이다.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인 런던의 대영박물관에 가면 영국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거진 약탈해오다시피 한 옛날 유물들이 가득하다.

코츠월드 도시 주변의 풍광은 전형적인 영국의 농촌풍경이지만 역사가 깊은 지방이어서 그런지 더욱 그윽하고 소박하다. 영국에 가면 꼭 스코틀랜드에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영국인들에게 수난을 당해왔던 스코틀랜드는 다른 영국지역 보다 웅장하고 거친 자연이 압권이다.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인 에딘버러와 서북쪽 해변의 풍경은 아기자기한 영국풍경에서 갑자기 힘이 넘치는 새로운 느낌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서북쪽 해안 도시는 모두 아름답지만 오본(Obon)과 포트 윌리엄(Fort William) 주변의 해



스코틀랜드의 전통복장을 입은 한 남자가 흰 미소를 짓고 있다.

안선은 절경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시골풍경 외에도 런던에는 볼거리가 너무나 많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에는 페이지가 부족할 정도다. 영국이 옛날 빅토리아 여왕 시절보다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와 전통이 현대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다. 유럽 내에서도 영국의 위치는 확고하다. 영국의 국민총생산이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는다는 사실로 우리보다 두 배 잘 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생활의 스케일, 다양성과 안정성 등 삶의 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영국인들은 직접적이기보다는 은근한 표현을 즐겨 쓴다. 소탐대실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중에 'He is too clever(그는 너무 똑똑해)'라는 표현이 있다. 역사와 전통이고 현대화만 미명 아래 마구 허물고 부수는데 선수들인 우리나라 사람들도 너무 똑똑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 ⊕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인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대 조각품



비행시뮬레이션 게임 이야기

F-16 Falcon(3)

프로그래머 · 게임평론가 **최 세 영**

artmap@namo.co.kr



F-16 멀티롤 파이터(Multirole Fighter)(1998, 노바로직)

〈Falcon〉이나 〈Flight Simulator〉시리즈가 사실성을 추구하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과 대조적으로 노바로직(NovaLogic)사는 전통적으로 자신들만의 시장공략 전략을 세웠다. 그것은 사실성을 많이 희생하는 대신 게임의 재미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이다. 사실성을 중시하는 이른바 하드코어 시뮬레이션 매니아들에게는 외면받았지만, 비행시뮬레이션을 복잡하고 어려워하는 플레이어들에게는 환영을 받았다. 노바로직사는 〈F-22〉시리즈를 비롯하여 〈코만치(Comanche)〉, 〈MiG-29〉와 같은 게임을 발표하였는데, F-16을 주제로 한 게임이 1998년에 발표한 〈F-16 Multirole Fighter〉이다. 노바로직사의 게임들은 사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적지않은 비난을 받았으나 그래픽만큼은 최상의 평가를 받아왔다. 〈F-16 Multirole Fighter〉의 그래픽도 〈Falcon 4.0〉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정교함을 보여준다.



Jane's USAF(1999, Jane's Combat Simulation/일렉트로닉 아츠)

제인스 컴뱃시뮬레이션(Jane's Combat Simulation)사는 90년대 중반부터 <ATF>, <USNF>, <Long bow>, <IAF>, <Figthers Anthology>와 같은 게임들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밀리터리 시뮬레이션 분야의 대명사가 되었다. <Falcon>이나 <F-16 Multirole Fighter>가 오직 F-16만을 조종하는 것과 달리 서방과 동구권을 망라하여 수많은 전투기들을 게임에 포함시켰다. 게임에서는 좀처럼 다루지 않는 B-2와 같은 폭격기도 포함된 적이 있다. 이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기체 고유의 특징이 희석되어 사실성이 감소된다고 반박한다. 1999년에 발표된 <USAF>는 미 공군의 주력기종 8개만을 다루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F-16임에는 당연하다.

제인스사의 게임들은 사실성과 게임의 재미라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 절묘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다. 또한 게임 속에 포함된 방대한 군사정보는 제인스사만의 자랑이기도 하다. 비행시뮬레이션이나 군사시뮬레이션 게임들은 다른 게임들과 달리 고정적인 지지층(매니아층)을 제외하고서는 시장성이 약하다. 결국 일렉트로닉 아츠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던 온라인 서비스인 제인스 컴뱃넷(Jane's Combat Net) 서비스를 2001년에 중단시키기에 이른다. 네트워크 공간에서 펼쳐진 전세계 파일럿들의 전쟁이 끝나 버린 것이다.



Jane's USAF에 등장하는 Su-27

비행시뮬레이션 게임의 미래

<Flight Simulator 2> 이래로 20년 동안 수많은 게임들이 개발되고 사라져 갔다.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의 영원한 숙제인 사실성과 게임의 재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말이다. 그 20년간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의 혁신은 그 속도를 가늠하기가 힘들다. 80년대의 Apple 컴퓨터와 상황을 비교하자면, 컴퓨터의 클럭 주파수는 1800배 이상 빨라졌고, 메모리는 4000배 이상 늘어났다. 네트워크의 회선속도는 1000배 이상 빨라졌고, 그래픽의 해상도는 픽셀 수가 6배 이상 많아졌으며, 색 표현 능력은 자그마치 200만 배 이상이 되어 사진 같은 표현이 가능해 졌다. <Jet>에서 <USAF>까지를 보고 있으면, 이런 눈부신 진보의 역사를 대변이라도 하는 듯 하다.

무서운 속도의 진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전자의 속도가 무한할 수



Jane's USAF에 등장하는 F-22



Jane's USAF에 등장하는 F-15

없듯이, 이러한 발전에는 분명 한계점이 찾아올 것이지만,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로의 변혁이 그러했듯이, 양자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대안이 또한 한 번의 혁명적인 발전을 이루어 낼 것이다. 20년 전에 오늘과 같은 혁명적인 변화를 상상하기 힘든 것처럼, 미래의 비행시뮬레이션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지금 이상의 발전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마저 생긴다. 다만 더욱 발전된 네트워크 성능의 향상과, 가상현실, 병렬처리 등의 기술이 게임의 영역에도 적극적으로 이용되어 질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앞으로도 멋진 가상체험의 시대는 계속된다는 점이다. 컴퓨터를 켜고, 조이스틱을 잡고, 출격하기만 하면 된다. 🚀

20년 전에 오늘과 같은 혁명적인 변화를 상상하기 힘든 것처럼, 미래의 비행시뮬레이션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앞으로도 멋진 가상체험의 시대는 계속된다는 점이다. 컴퓨터를 켜고, 조이스틱을 잡고, 출격하기만 하면 된다.



Jane's USAF에 등장하는 F-16



Jane's USAF에 등장하는 F-117





스트레스, 피하지 말자!

제3방공포병여단 의무실장 대위 **홍 승 권**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은 의사를 찾는 환자의 70%를 차지할 만큼 흔하지만,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린다. 개인차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의 증가보다는 개인의 대응능력 소진에 더 큰 이유가 있다. 전보다 외부적인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 데도 더욱 힘들고 짜증이 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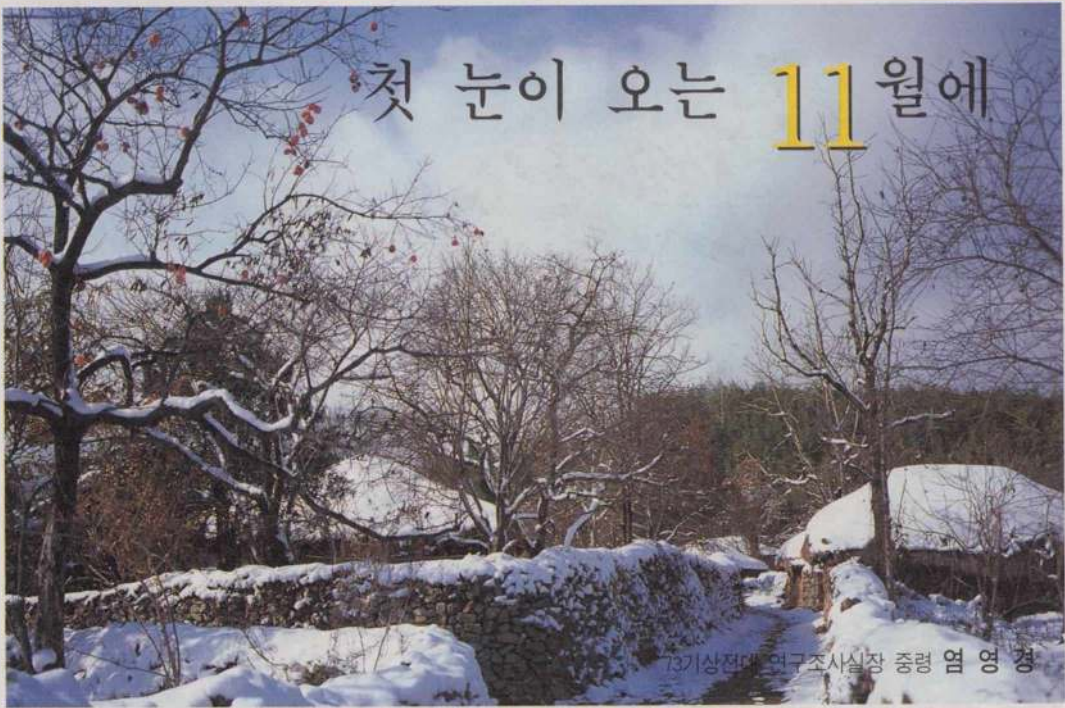
스트레스는 대개 악순환을 겪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불안은 두통, 소화장애 같은 신체증상으로 표현된다. 일단 신체증상이 생기면 증상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게 된다. 이로 인해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업무능력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 자신감은 더욱 결여된다. 이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어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신체의 질환이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원인이 내부에 있는 것이 바로 '신경성' 질환이다. 여기에는 기능성 위장장애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긴장성 두통 등이 속하게 되는데, 주로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다. 긴장상태가 계속되면서 불안증이나, 불면증, 우울증 같은 정서적인 질환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알코올이나 카페인, 약물 및 담배 중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한다. 무기력

해지고 활동력이 저하되며, 조금이라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피하려고만 한다. '이 같이'와 같은 신경질적인 습관이 나타나기도 하며, 폭식이나 금식, 편식 같은 식습관의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남의 일에 간섭 잘하고, 남의 생각에 쉽게 영향을 받는 한국인의 속성에서 비롯되는데, 남의 눈치를 보고 체면을 중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스트레스이다. 남자는 동료, 상사, 부하와의 관계, 여자는 가정에서 시부모, 남편 및 자식과의 관계에서 주로 나타난다.

스트레스 조절법으로 운동이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른 것에 비해 경제적이기도 하며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유지할 수 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자기 통제력이 고양되는데, 이는 운동을 통해 얻어지는 성취감 때문이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가 많은 장소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기분전환의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는 피하지 말아야 한다. 즉, 술, 담배 또는 신경안정제 등의 약물은 실제로 뇌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잠깐 동안은 스트레스에 무디게 만들어 주지만, 잠시 후면 똑 같은 스트레스가 엄습해 온다. 지나친 성취욕에 얽매이지 말 것, 즉 실현성이 적은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이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도 함께 커지게 된다. 심신의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방법으로 근육이완, 요가, 생체피드백, 명상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훈련, 국선도 등의 방법이 있다. Ⓣ



첫 눈이 오는 11월에

73기상전대 연구조사실장 중령 엄영경

한낮의 더위가 엇그제인 것 같은데 어느덧 겨울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낙엽은 지고 생명의 변화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계절이다. 그러나 가을이 가져다주는 황금빛의 풍요로움은 11월에 이르면 이미 저만치 멀어져 가는 것 같다. 여름내 푸르던 잎새는 바스라질 듯 붉은 옷을 갈아입고, 깊어 가는 가을 하늘은 더욱더 투명해진다.

11월 중순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다가 하순이 되면 전형적인 서고 동저의 겨울철 기압배치로 자리를 잡으면서 점차 북서계절풍이 불기 시작한다. 기온은 3°C에서 13°C의 분포로, 하순으로 가면서 기온 하강폭이 커지고,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한 때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한파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11월말이 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첫눈이 시작된다. 그러한 급작스런 한파와 강풍, 그리고 눈을 동반한 돌변 기상은 항공작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따라서 날씨변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겠다. 강수량은 10월과 비슷한 50mm 내외로 겨울 가뭄이 시작된다. 또한 기온 급강하로 전열기사용이 증가하

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의한 화재발생이 용이하니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겠다.

절기로는 찬서리가 내린다는 입동(立冬)이 7일이다. 예전에는 이 시기를 놓치면 김치의 상큼한 맛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우물가에는 마을 부녀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무와 배추 씻는 풍경이 참으로 장관이었다. 첫눈이 내리고, “초순의 흠바지가 하순의 솜바지로 변한다”는 속담처럼 기온이 급강하하는 소설(小雪)이 22일이다. 찬 서리 내리고 집 한 쪽 감나무 끝엔 까치 밥만이 남아 홀로 외로운 때가 입동이다. 일순간 몰아치는 바람은 짧았던 가을의 끝임을 알리고 벌써 긴 겨울이 시작됨을 고한다. 우리의 조상들은 11월을 추수를 끝내고 아무 걱정 없이 놀 수 있는 달이라 하여 ‘상달’이라 했고 일하지 않고 놀고 먹을 수 있어 ‘공달’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11월은 가을의 끝이자 겨울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겨울 준비를 하는 달이 바로 11월이었다. 우리 역시 겨울 준비를 하면서 1년의 업무를 정리할 때이기도 하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보람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하자. Ⓣ

독립인물

신숙(申肅)



1885년 경기도 가평 출생. 3·1 독립운동시 독립선언서 교정·인쇄·배포에 참여하였으며, 1920년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라 천도교대표로 상해로 망명, 임정요인인 안창호 등과 독립운동 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1921년에는 북경에서 신채호·박용만 등과 함께 군사통일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활동하였다. 1924년에는 만주 농촌에 정착하여 천도교 남법강종리원을 설립하고 학생지도와 농촌계몽, 교리전파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정의·신민·참의 3부 통합회의에 신민부 대표로 참석하기도 하였다. 1930년에는 홍진·이청천 등과 한국독립당을 조직, 총무위원장·문화부장으로 활약하였고, 1931년 동북사변이 일어나자 한국독립군의 참모장으로 쌍성현 공략에 참전하기도 하였다. 1935년 일경에게 체포되었으나 일제의 회유정책으로 이듬해 석방되었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되었다.

문화인물

김승호(金勝鎬)



본명 해수(海壽). 1918년 강원도 철원 출생. 보성고보 졸업 후, 동양극장·신협(新協) 등에서 연극생활을 하였다. 1946년 영화 <자유만세>로 데뷔, <집가는 날>(1956), <인생차압>(1958), <육체의 길>(1959), <로맨스 빠빠>(1960), <굴비>(1963), <들무지>(1967) 등 35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였으며, 영화인협회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특히 그가 출연한 <마부>(1961)는 제11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특별 은곰상을 수상하였다. 독특한 인간미를 지닌 연기자로 1957년 제1회 부일영화상 남우주연상, 1958년 제1회 영화평론가협회상 남우주연상, 제7·8회 아시아영화제 남우주연상, 제2회 영화세계 남우주연상, 1967년 청룡영화상 등을 수상하였다.

호국인물

고태문(高泰文)



1929년 제주도 북제주군 출생. 일본 오사카 제충공업학교를 졸업한 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군에 입대하여 소위로 임관했다. 1951년 8월, 보병 제11사단 9연대 7중대 소대장으로 884고지전투에 참가, 고지를 탈취하는데 성공했다. 중위로 진급 후 5사단 27연대 9중대장에 보직되어 1952년 11월, 351고지 방어전투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었지만 중과부적으로 끝내 진지 사수가 어려워 지자 중대원들을 철수시키고 본인은 적탄에 맞아 전사했다. 그 후 351고지는 전사한 중대장의 부하 대원들이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재탈환에 성공했다. 정부에서는 그에게 884고지 전투에서 세운 공로로 화랑무공훈장과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하였으며, 351고지 전투에서의 그의 희생정신과 위훈을 추모하기 위하여 1계급 특진 및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先公後私의 정신

공군 예비역 대령 강 옹 구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우리는 지난 2002 한일 월드컵을 치르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도 원했던 1승과 16강을 넘어 8강, 4강의 신화를 창조한 태극전사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로 뭉쳤던 붉은 악마는 한반도를 붉은 바다로 만들었고 그들이 외쳤던 대한민국 필승 코리아의 함성은 천지를 진동시켰다. 세계가 놀랐고 우리 자신도 놀랐다. 한편의 드라마요, 대서사시였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우리는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 됐다. 일찍이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의 시처럼 이제 동방의 등불을 넘어 세계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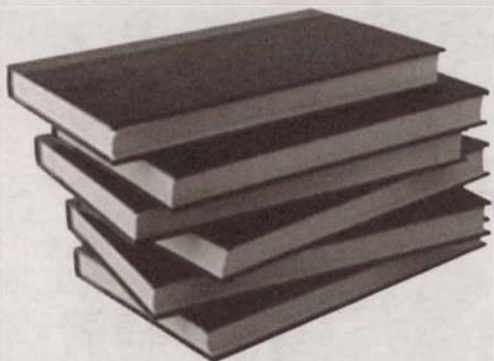
이번 월드컵을 지켜보면서 축구에서도 선공후사의 정신이 적용됐을 때 골이 잘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욕심부려 자기가 직접 공을 찼을 때는

공이 잘 들어가지 않지만 어시스트한 공을 받아 찼을 때는 번번이 골문을 가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선공후사의 정신은 우리 일상생활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뿌리는 한반도인데 그 역사의 나무에 물을 주고 가꾸어 열매를 얻은 것은 주변국인 경우가 많다. 우리로부터 정신, 학문, 기술 등을 전수 받은 일본이 선진강국이 되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 정신 형성의 기틀인 선공후사(先公後私),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민족정신을 되살릴 때가 왔다. 월드컵에서 보여주었던 민족의 저력으로 뚝뚝 뭉쳐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세계의 중심국으로 거듭나 동방의 밝은 빛으로 타오르도록 다함께 정신을 가다듬도록 하자. ⊕





Shall we read?

나의 독서법(3)

책은 험하게 보아야 한다

제5전술공수비행단 병장 김영준

첫째, 책을 읽기 전에 서문, 목차 등을 유심히 읽어본다. 서문을 읽게 되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어 책을 읽으면서 핵심내용을 놓치지 않으며, 목차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어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둘째, 책을 읽는 동안에 중요한 문장이나 단어에 표시를 한다.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하게 되면 오래 기억되고, 다음에 그 내용을 찾을 때 큰 도움이 된다. 표시하는 방식도 평범하게 하지 말고, 자신만의 것을 만드는 것이 좋다. 셋째, 책을 너무 깨끗하게 사용하지 말라. 고등학교 시절, 교과서 볼 때 밑줄을 긋고 참고사항을 적어 두는 것처럼 책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책을 험하게 사용해야 한다. 넷째, 책을 읽는 동안에 항상 물음표를 띄우고 그 해답에 대해 생각을 한다.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 해답을 찾는 마음으로 책을 읽게 되면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음악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독서

제16전투비행단 상병 김동현

자신의 가치관에 기준해 책을 선택해야 한다. 선정적이고 상업적인 내용의 책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쾌락만 줄 뿐 진정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올바른 가치관에 어울리는 책은 지속적으로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 가치관과 어울리는 책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읽는 재미와 감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책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책 속의 의

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책이 만화든, 수필이든, 소설이든 무늬만 책일 뿐 책으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된다. 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책 속의 글자들은 그림이 될 뿐이다. 책 내용에 스스로 반론도 해 보고, 의문을 가져봄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는다. 음악을 듣는다고보다 다른 어떤 것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비우고 나만의 공간에서!

제3방공포병여단 일병 고재성

우선 나만의 도서관을 구한다. 한두 시간 동안 누군가가 찾지 않을 법한 장소를 고르는 것이다. 이런 저런 여건이 안되는 사람은 화장실이라도 어떠한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장소야말로 독서의 첫번째 조건이 될 것이다. 둘째는 책을 마음속으로 읽는 것이다. 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진 수필이나 소설을 좋아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책에 나오는 글자들을 하나씩 읽어가면 수필이나 소설의 내용이 내 경험인 것처럼 느껴지고 나도 모르게 책에 푹 빠지게 된다. 이런 방법이면 책과 함께 한두 시간은 금세 지나간다.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을 자신의 지상과제로 삼고 '한 달에 3~4권', '하루에 1시간 독서'라는 목표를 정하는 순간 책은 즐거움이 아니라 하루일과 중 해결해야 할 부담으로 다가온다. 독서는 독서 그 자체로 즐거움이어야 한다. Ⓣ

풀 이파리 날리는 내 기억 속의 제초반

제16전투비행단 일병 이윤상

지금 군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들 대부분은 계급을 떠나서
아마 대부분 비슷한 고민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의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의 내 모습에 대한 불안감. 이 중에 하나씩은 있지 않을까?

훈련소를 무사히 마치고 부대배치를 받은 후, 누구나 그렇듯 하루하루가 고행(?)이었던 이등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물론 이 시기는 다양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재미있는 일, 유익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때이기도 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제초반'에 관한 기억이다. 부대에 배치된 지 한 달쯤 된 '따끈한' 신병 무렵. 이제 선임병들의 이름과 얼굴이 거의 각인이 되고, 사무실 일도 슬슬 익숙해지기 시작하던 때였다. 이게 웬 날벼락인가?(그땐 진짜 이렇게 생각했었다) 나를 제초반으로 파견보낸다는 말이 들려왔다. 가끔 선배들이 제초기를 돌리는 걸 볼 때마다 좀 위험하진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대할 때까지 제초기를 안 만졌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었는데, 그 일을 매일 해야 하다니. 기분이 착잡했다.

며칠이 지나서 파견이 현실로 다가오고, 보고를 마친 나는 제초반으로 직행했다. 내무실을 처음 본 소감은 한마디로 '칙칙하다'였다(나중에야 그것이 풀을 깎는 일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임을 알았지만, 처음에는 나지도 않는 냄새도 난다고 생각했었다).

땀에 절어 있는 제초복으로 갈아 입고 작업하는 곳으로 간 나는 30분 동안 일을 배우고 바로

작업에 투입되었다. 생각보다 위험하지는 않았지만 땀벌에 오랜 시간, 뜨끈한 엔진 하나를 등에 업고 다니니 너무 힘들었다. 첫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반원들에게 미안함 반, 만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은 어색함 반으로 내무실에 앉아 있는데 나보다 일찍 파견 온 선배(?)들이 친절하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칙칙했던 첫인상은 사라지고 꽤 괜찮은 곳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

제초반은 비가 오지 않는 날은 대부분 '조출'을 한다. 기상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작업을 하는 것이다. 대신에 오후에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난 이 스케줄에 금방 적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침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을 했다. 피곤하긴 하지만 마냥 잠을 자는 것보단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싶었다. 하다못해 소설을 읽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잠을 자는 대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갔다. 정말 얼마 안되는 시간이었지만 많은 보람을 느꼈던 시간이었다.

제초반에는 선배라는 개념이 별로 없다. 대부분 계급이 다르지만(병장부터 이병까지 다양하다) 서로를 편안하게 대해준다.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트럭 안에서 '3·6·9'와 '쿵쿵따' 계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02.6.1~2004.5.31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월간 공군'

3 2 0 - 9 1 3

공군은
을 사랑하는
에 의해
어지고 있습니다.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 □ □ - □ □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 신 :

공군은
을 사랑하는
에 의해
어지고 있습니다.

월간 공군

320-913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호) 6231-7, 02) 506-6231-7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퀴즈로! 퍼즐로! 정답]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퀴즈로! 퍼즐로! 정답]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
상품을 드립니다



군대오기 전의 내 모습, 주변 사람들, 학교, 앞으로의 삶 등.
 잡다한 생각을 했지만 언제나 결론은 하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의 내 모습에 후회하지 말자',
 '뒤돌아보기만 하기에는 시간이 아깝다',
 '나는 아직 젊다',
 후회할 수 있는 힘으로 새로운 일을 해보자'였다.

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모두들 너무 즐거워했다. 군대 오기 전, 이미 군을 갔다온 친구가 기분이 우울해 있던 나에게 '임마,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야'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지금 군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들 대부분은 계급을 떠나서 아마 대부분 비슷한 고민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의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의 내 모습에 대한 불안감. 이 중에 하나씩은 있지 않을까?

막막한 이등병 생활을 하고 있던 나는 제초반에서의 파견기간 동안 생각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군대오기 전의 내 모습, 주변 사람들, 학교, 앞으로의 삶 등. 잡다한 생각을 했지만 언제나 결론은 하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의

내 모습에 후회하지 말자', '뒤돌아보기만 하기에는 시간이 아깝다', '나는 아직 젊다. 후회할 수 있는 힘으로 새로운 일을 해보자'였다.

제초반 생활은 한 달로 끝이 났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법 제초기도 능숙하게 돌리게 되었다. 내가 제초반에 있었던 것을 아시는 아버지는, 벌써부터 내년 추석 별초 담당은 나로 내정(?)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제초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가기 싫던 제초반이 지금은 앞으로 남은 나의 군생활에 큰 에너지와 추억거리가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

인천공항 세계 3위, 대한항공 세계 6위

인천국제공항과 대한항공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관광, 여행전문지에 우수 공항 및 항공사로 선정됐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홍콩의 '비즈니스 트래블러 아시아-퍼시픽(Business Traveller Asia-Pacific)'이 최근 발표한 세계 최고 공항 순위에서 인천공항은 싱가포르의 창이공항과 홍콩의 첵랍콕 공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또 세계 최고 항공사 부문에서는 대한항공이 싱가포르 항공, 홍콩 캐세이퍼시픽, 영국 브리티시 에어 등에 이어 세계 6위에 랭크됐다. 비즈니스 트래블러는 매년 비즈니스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공항, 항공사, 도시, 호텔 등 4개 부문의 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번 조사는 작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10회 이상 해외출장을 간 경험이 있는 비즈니스 여행객 1만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지방공항 지역별 특화로 위기해결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 163개국 528개 공항운영주체들의 모임인 ACI 태평양지역 총회에서 윤웅섭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임기 2년의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ACI 태평양지역 사무총장은 27개국 60개 공항운영주체가 가입한 태평양지역 업무를 총괄하는 동시에 ACI 세계이사회 임원으로 세계공항의 포괄적인 정책결정수립에도 참여하는 비중있는 자리다. 김포공항과 지방공항을 관할하는 윤사장은 "항공수요 감소와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국제공항을 살리기 위해선 각 지방공항의 여건에 맞는 특화추진과 함께 신규 항공노선(국제선)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소속 스카이팀, 세계최고 항공기업 선정

대한항공은 세계적 금융전문지인 글로벌 파이낸스가 세계 최고기업 항공사 부문에서 자사가 속한 스카이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카이팀 얼라이언스는 지난 2000년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 프랑스, 아에로 멕시코가 공동 창설했고 후에 체코 항공, 알리탈리아가 참여해 총 6개 회원 항공사가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세계 최고기업 선정은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파이낸스 기자단이 기업 애널리스트들의 분석과 각종 회사 보고서 및 자료를 참고해 선정한다. 기업의 수익과 성장, 시장성장성, 상품에 대한 비약적 발전, 위기극복 능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수상기업들은 내년 1월 뉴욕에서 수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2002년 공군을 빛낸 인물 선발

공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선양하고 창의적·능동적인 업무수행으로 조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랑스러운 공군인을 포상하는 '공군을 빛낸 인물' 수상대상자를 추천받습니다. 추천대상 부문은 ▲전투력 발전 부문 ▲조직운영 발전 부문 ▲신지식정보화 부문 ▲회생·봉사 부문 ▲체육·문화 부문 ▲협력 부문 등 총 6개 부문이며 부문별 1인 또는 단체에 수여됩니다. 공적기간은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이며 추천서류를 구비하여 11월 9일(토)까지 공군본부 인사참모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효)1274

공군 군악대, 일본 자위대 음악축제 참가

공군 군악대가 일본 자위대의 초청을 받아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동경에서 열리는 '02 자위대 음악축제'에 참가합니다. 1963년에 시작하여 38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자위대 음악축제에는 대한민국 공군 군악대를 비롯, 일본 육상·해상·항공자위대 군악대, 미 육군군악대(일본 지바현 주둔 296군악대)·해군군악대 등이 참가하여 마칭 퍼레이드와 합동연주를 통해 각 군간의 우의를 다질 예정입니다.



문의 : 효)6235

공군 병 선발제도 개선

공군은 병 모집 선발방법을 2002년 11월 모집부터 기존 학과시험(필기시험)에서 서류전형으로 개선 시행합니다. 지원자격 및 방법은 현행과 동일하며 자격증 소지자 및 사회경력자는 우대 선발합니다. 어학병/군악병은 현행과 동일하게 별도의 전형을 통해 선발할 계획입니다. 개선되는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군 홈페이지 공군모집→병 메뉴에 게재되어 있으니 공군 병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시고 지원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각 응시지구 모병실

항공우주력 건설 홈페이지 개설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에서는 21세기 항공우주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과 비전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항공우주력 건설' 인트라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항공우주력 소개 ▲항공우주력 건설 ▲항공우주소식 등의 기본메뉴가 갖춰져 있으며 각종 우주상식과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군본부 인트라넷 홈페이지→Special Information→항공우주력 건설



문의 : 효)5834

이달의 문제

	1				2				3
	4		5 ③		6	7		8	
						②			
		9						10	11
					12 ①				
13									
					14		15		
16									

지난호 정답/여조종사

국	방	위	원	회				반	려	자
가				자				칙		
고	종 ③	수		정		여 ①	왕	개	미	
시		정	수	리					구	
	사 ④	과						아	리	랑
							황			데
	색					조 ②	선	총	독	부
	연		수				홍		불	
지	필	연	목							장
		소	화	기			독	립	군	

▶ 가로열쇠

- 머리털이 없는 사람, 혹은 사라져 가는 사람. 스트레스 캡입니다.
-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다면 미국에는 이 날이 있지요. 칠면조요리
- 온갖 종이를 파는 가게
- 옛날 동전. ○○ 열~닷~냥
- 보통 사람들보다 기이한 힘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 ○○열전
- 가수 성시경의 별명. ○○왕자
- 전자의 이동으로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 손바닥 때리고 침 바른 손가락 빙빙
- 가축을 풀어놓고 기르는 것
- 강가나 개천 등에 돌덩이를 드문드문 띄어놓은 다리. 아~ 낭만낭만
- 기차가 거의 서지 않는 작은 역. 아~ 이것도 낭만낭만
- 생일날 다들 이걸 먹지요. 시험 볼 때 먹는 사람은 아마 없을 듯.

① ② ③ 에 들어갈 낱말을 독자엽서에 적어 11월 22일까지 보내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열 분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세로열쇠

- 김정호가 만든 우리나라 전도. 직접 발품 팔아가며 만든 정성이 대단합니다.
-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한 칼에 우수수
- 오호, 세상에 이리도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니.
- 지물○+두산 베어○+나루○
- 교양과목만 잘하면 될 하나? ○○과목을 잘해야지.
- 보통 4명이 한 조. 운동회. 모자 지키려다 머리털 다 빠집니다.
-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뭐든지 사라진다. ○○○ 삼각 지대. 돌아가는 삼각지!
- 드디어 월간 공군이 발행부수 세계 신○○을 수립했습니다!
- 참새가 이곳을 그냥 지나가면 참새가 아니라 시조새다.
- 너무 어렵다. 갑각류의 민물새우. 집게발이 있는 것이 특징. 출제자도 몰라
- 으랏차차!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는지 겨루는 스포츠

퀴즈로! 퍼즐로!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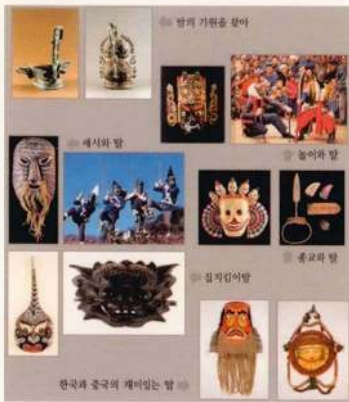
충북 단양군 적성면 소야리 이상윤
 경남 마산시 합성1동 최정미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432-50 이건호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신정미
 경남 사천시 수석동 사서함 336-13 김철중

부산시 남구 대연동 사서함 120-14 김맹수
 충남 논산시 두미면 부남리 사서함 501-322 병장 정동준
 충북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383-25 병장 홍성근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사서함 5 최충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임종성

『신의 표정 인간의 몸짓, 중국탈』 기증전

국립민속박물관은 한·중 수교 10주년과 2002년 한·중 국민교류의 해를 맞아 중국의 대표적인 민속문화인 중국탈을 전시하는 『신의 표정 인간의 몸짓, 중국탈』 기증전을 개최하고 있다. 오는 12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기증전에는 서울대 명예교수 김학주 선생이 중국 각지에서 수집해 기증한 중국탈 281점을 비롯, 중국의 연희문화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 350여 점이 선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전역에 전승되는 다양한 형태의 탈들을 함께 모아 유형별로 전시함으로써 지금까지는 접하지 못했던 중국탈의 기이하고 신비로운 세계를 엿볼 수 있다.

문의 : 02)720-3138



『60년대 이응로 추상화전, 墨과 色』

『60년대 이응로 추상화, 墨과 色』전은 1962~'67년에 제작된 고암 이응로 화백의 추상화 소품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응로는 폭넓고 다양한 기법과 소재를 사용하여 점과 선, 여백과 채색, 구상과 추상, 동양과 서양의 만남의 장으로 소품의 가능성을 확장시켜 갔다. 그의 작품 속에는 생명을 지닌 모든 것, 자연과 인간에 대한 한결같은 애정이 자리하고 있다. 평화로운 일상과 정겨운 산수 등 소품 속으로 들어온 대자연은 무한히 퍼져 나가는 생명의 움직임으로 충만하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가을에 열렸던 <60년대 이응로 추상화전>에 이어 기획되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며, 자연과 인간과 글자가 하나되는 고암의 소품

을 통해 작지만 넓은 세상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12월 21일까지. 이응로 미술관.

문의 : 02)3217-5672



어린 뱀날, 1966, 종이화 수묵담채, 34×23cm

남이장군 대제

조선시대 세조 때 도적을 토벌하고 반란을 평정했던 남이장군(1441-1468)은 28세의 젊은 나이에 병조판서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으나 역모죄로 모함을 받아 처형당했다. 남이장군 대제는 젊은 나이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남이장군의 영혼을 달래고 장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사당을 지어 제를 지내면서 시작되었다. 1972년 당굿을 끝으로 간단한 제만 지내오다가 1983년 학계의 복원작업에 의해 남이장군 당제에 장군의 출진을 재현하는 등 문화행사도 병행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11월 4일부터 9일까지. 남이장군 사당 일원.

문의 : 02)703-3320





작은 것에서 우주를 보는 지혜

21세기,
대한민국 공군은
항공우주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군은
하늘을 사랑하고 飛行을 동경하는
여러분들의 작으면서도 소박한 꿈을
잊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더 큰 세계를 보는 눈
바로
대한민국 공군의 힘입니다.